

발 간 등 록 번 호

11-1492000-000645-14

2022년 기준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 산출

2023. 12.

연구기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책임자 : 전 기 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자 : 김 종 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주 재 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강 민 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 동 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신 우 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최 진 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노 우 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양 준 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고용노동부

본 보고서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고용노동부의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수행한 연구입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고용노동부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목 차

I. 서론	1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3
2. 연구내용 및 방법	4
II. 추진경과	5
1.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표 개발(2017년)	7
2.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 산출(2017년~)	8
가. 2017년 지수 산출	8
나. 2018년 지수 산출	11
다. 2019년 지수 산출	14
라. 2020년 이후 지수 산출	16
III. 2022년 기준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 산출 결과	19
1. 2022년 기준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 산출 결과	21
2. 2021년 및 2022년 지수 비교	34
가. 총점	34
나. 영역별 점수 변화	37
IV. 결 론	53
1. 주요 연구결과 및 시사점	55
2. 정책제언	56
가. 전년 대비 감소 지표 개선 사업의 지속 추진	56
나.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정도의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 반영 방안 검토	56

■ 참고문헌	57
■ 부 록	59
[부록] 영역별 점수 산출 과정	61

표 목 차

〈표 II-1〉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표의 구성 및 가중치	7
〈표 II-2〉	지자체 관심도 영역 지표별 산출식	9
〈표 II-3〉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표 산출 현황	10
〈표 II-4〉	2018년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결과값 이용 지수산출방식	11
〈표 II-5〉	‘일·가정 양립 제도 인지도’ 조사 통계 차이점	14
〈표 II-6〉	시나리오별 평균값 비교	15
〈표 II-7〉	지표별 자료원 및 기준값(2020년~)	16
〈표 III-1〉	2022년 기준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 산출 결과	22
〈표 III-2〉	2021~2022년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 산출 결과	35
〈표 III-3〉	2021-2022년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 점수 및 순위 변화: 총점 ..	36
〈표 III-4〉	‘일’ 영역 지표의 통계값 및 점수 변화(2021~2022년)	38
〈표 III-5〉	2021~2022년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 점수 및 순위 변화: 일	38
〈표 III-6〉	2021-2022년 일 영역 지표의 증감 현황	40
〈표 III-7〉	‘생활’ 영역 지표의 통계값 및 점수 변화(2021~2022년)	41
〈표 III-8〉	2021~2022년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 점수 및 순위 변화: 생활	42
〈표 III-9〉	2021~2022년 생활 영역 지표의 증감 현황	44
〈표 III-10〉	‘제도’ 영역 지표의 통계값 및 점수 변화(2021~2022년)	45
〈표 III-11〉	2021~2022년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 점수 및 순위 변화: 제도	46
〈표 III-12〉	2021~2022년 제도 영역 지표의 증감 현황	47
〈표 III-13〉	‘지자체 관심도’ 영역 지표의 통계값 및 점수 변화(2021~2022년)	48
〈표 III-14〉	2021~2022년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 점수 및 순위 변화: 지자체 관심도	49
〈표 III-15〉	2021~2022년 지자체 관심도 영역 지표의 증감 현황	51

그 립 목 차

[그림 III-1]	2022년 기준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 산출 결과: 총점	23
[그림 III-2]	2022년 기준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 산출 결과: 일 영역	23
[그림 III-3]	2022년 기준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 산출 결과: 생활 영역	24
[그림 III-4]	2022년 기준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 산출 결과: 제도 영역	24
[그림 III-5]	2022년 기준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 산출 결과: 지자체 관심도 영역	25
[그림 III-6]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 산출 결과: 서울, 부산, 대구, 인천	26
[그림 III-7]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 산출 결과: 광주, 대전, 울산, 세종	28
[그림 III-8]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 산출 결과: 경기, 강원, 충북, 충남	30
[그림 III-9]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 산출 결과: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32
[그림 III-10]	2021~2022년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 산출 결과: 총점	37
[그림 III-11]	2021~2022년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 산출 결과: 일 영역	39
[그림 III-12]	2021~2022년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 산출 결과: 생활 영역	43
[그림 III-13]	2021~2022년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 산출 결과: 제도 영역	46
[그림 III-14]	2021~2022년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 산출 결과: 지자체 관심도 영역	50

부 표 목 차

[부표 1]	일 영역(1)	61
[부표 2]	일 영역(2)	62
[부표 3]	생활 영역(1)	63
[부표 4]	생활 영역(2)	64
[부표 5]	생활 영역(3)	65
[부표 6]	제도 영역(1)	66
[부표 7]	제도 영역(2)	67
[부표 8]	제도 영역(3)	68
[부표 9]	지자체 관심도 영역(1)	69
[부표 10]	지자체 관심도 영역(2)	70

I

서론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3

2. 연구내용 및 방법

4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정부가 국정과제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을 위해 육아휴직기간 및 육아휴직 급여 적용 대상(특고 등),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휴가 기간 확대 등을 추진함에 따라 일·생활 균형의 정책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또한 정부는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을 위해 “일하는 부모의 근로시간 단축 확대” 등을 통한 ‘일·육아 병행지원 및 경력단절 사전 예방’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가사근로자법 시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 상향 검토 등 가사·돌봄 부담 경감을 통한 맞벌이 부부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추진함에 따라 일·생활 균형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생활 균형의 정책적 중요성이 강조되는 이유는 일·생활 균형이 여성 경력단절 예방과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절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적 방안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정부의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통한 일·생활 균형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따라 지역과 기업 현장에서도 일·생활 균형 문화가 더욱 확산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그 동안 중앙정부, 대기업 중심으로 추진되어 온 일·생활 균형 정책을 지방정부, 중소기업까지 확대하고, 지역 수준에서의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적 노력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의 필요성에 대응하여 고용노동부는 2017년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표개발 및 조사』를 통해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표를 개발하고, 2017년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표의 통계값을 바탕으로 지자체 관심도 영역을 포함한 전체 영역의 지수를 산출하였다. 그리고 2018년 기준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 산출부터는 관련 통계자료가 미비한 유연근무제도 도입이나 활용, 배우자출산휴가 사용 등과 같은 일부 지표에 대해서 전국 5,000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매년 조사하는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의 결과값을 활용함으로써 전체 지표의 지수값을 지속적으로 산출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 산출 결과는 지역에서의 일·생활 균형 수준을 진단하고 맞춤형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023년은 완비된 통계자료를 통해서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를 산출하는 다섯 번째 해이다. 이 연구에서는 일·생활 균형 영역별 지수 산출을 위한 통계자료를 구축하고, 지자체 관심도 영역의 지수 산출을 위한 자료 수집과 전문가 검증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지수를 산출하였다. 또한 2022년 기준으로 산출된 결과를 2021년 결과와 비교하여 변화 요인을 분석하고 정책제언을 도출하였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 연구내용

- 추진 경과
 -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표 개발
 - 지수 산출(2017~2022년 기준)
- 2022년 기준 지수 산출
 - 2022년 기준 통계자료 수집
 - 지자체 관심도 측정을 위한 관련 조직 및 조례 자료 수집
- 전년도 비교
 - 영역별 비교
 - 지역별 비교
- 정책제언 도출

□ 연구방법

- 문헌연구
- 통계자료 수집(지표별 조사통계자료 및 행정 데이터)
- 지자체 자료 수집(관련 조직 및 비상설기구, 관련 조례 등)
- 전문가 자문

Ⅱ

추진경과

- | | |
|------------------------------|---|
| 1.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표 개발(2017년) | 7 |
| 2.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 산출(2017년~) | 8 |

1.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표 개발(2017년)

고용노동부는 2017년 지역별 일·생활 균형 수준을 파악하고, 지역수준의 일·생활 균형을 지역단위로 확산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표를 개발하였다.

국내외 일·생활 균형(혹은 일·가정 양립) 관련 지표 및 통계자료 등 사례조사를 기반으로 개발된 본 지표는 일, 생활, 제도, 지자체 관심도 등 4개 영역에 대해 총 26개 지표로 구성되었고, 구성된 각 영역과 세부지표에 적용될 가중치는 전문가 조사를 통해 산출하였다.

〈표 II-1〉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표의 구성 및 가중치

영역 (1계층)	지표(2계층)			가중치 2017	가중치 2018
일	총근로시간			0.071	0.071
	초과근로시간			0.044	0.044
	1년간 사용한 휴가기간			0.030	0.030
	유연근무제도 도입률			0.028	0.028
	유연근무제도 이용률			0.048	0.048
생활	여성 가사노동 시간	→	남성 가사노동 시간 비중 (가사노동 시간 부담률)	0.025	0.050
	남성 가사노동 시간			0.062	
	여성취업에 대한 견해			0.025	0.030
	가사분담에 대한 견해			0.031	0.036
	일과 가족생활 우선도			0.041	0.048
	여가시간(평일)			0.026	0.030
	여가시간 충분도(평일)			0.034	0.039
	일 - 여가생활 균형 정도			0.058	0.068
제도	여성 육아휴직 이용→여성 육아휴직 사용 사업장 비율			0.040	0.040
	남성 육아휴직 이용→남성 육아휴직 사용 사업장 비율			0.054	0.05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이용자수→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 사업장 비율			0.028	0.028
	배우자 출산휴가 이용자수→배우자 출산휴가 이용(시행기업)			0.025	0.025
	국공립보육시설 설치비율			0.048	0.048
	초등돌봄교실 이용률			0.033	0.033
	일·가정 양립제도 인지도			0.021	0.021

8 2022년 기준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 산출

영역 (1계층)	지표(2계층)	가중치 2017	가중치 2018
지자체의 관심도	일·생활 균형 조례 유무	0.045	0.049
	지자체장의 의지→지자체의 일·생활 균형 제도 확산 노력	0.077	0.083
	담당조직 유무	0.052	0.057
	일·가정 양립 관련 회의·교육·행사개최→일·생활 균형 관련 교육·컨설팅	0.016	0.017
	지역사회 가족문화 관련 시설현황	0.020	0.021
	맞벌이부모 우대제도 유무	0.018	-

자료: 홍승아 외,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표개발 및 조사』, 고용노동부, 2017, p. 66 <표 IV-4>; 전기택 외, 『지자체 일·생활 균형 관련 실태진단 및 역할 강화방안 연구』, 고용노동부, 2018, pp.157-164 <부표 1>~<부표 8>

2.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 산출(2017년~)

가. 2017년 지수 산출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표의 통계값을 바탕으로 지자체 관심도 영역을 포함한 전체 영역의 지수를 산출하였다. 지자체 관심도 영역의 지수를 산출하기 위하여 전문가 자문 회의, 시·도 담당공무원 설명회 등을 개최하였으며 이를 통해 지수 산출식 등을 변경하였다.

지자체 관심도 영역에 대해 확정된 지표 및 산출식에 의해 지자체로부터 자료제출 요청 및 전문가 검증과, 검증 결과에 대한 시·도 의견 조회를 실시하였다.

또한 지자체 관심도 영역의 지자체장 의지, 일·가정 양립 관련 회의·교육·행사 개최는 지표 유지에도 불구하고 수집된 자료가 지수를 산출하기에 불충분하여, 해당 지표의 지수값을 산출하지 않았다. 이에 최종 적용된 지자체 관심도 영역 지표별 산출식은 <표 II-2>와 같다.

〈표 II-2〉 지자체 관심도 영역 지표별 산출식

지표명	산출식
일·생활 균형 관련 조례	• 일·생활 균형 조례 제정&근로자 등 시민지원&기업지원 명시: 1.00점 • 일·생활 균형 조례 제정&근로자 등 시민지원 명시: 0.75점 • 일·생활 균형 조례 제정&기업지원 명시: 0.75점 • 가족친화, 성평등 등 관련 조례 제정&근로자 등 시민 지원&기업지원 명시: 0.50점 • 가족친화, 성평등 등 관련 조례 제정&근로자 등 시민 지원 명시: 0.25점 • 가족친화, 성평등 등 관련 조례 제정&기업지원 명시: 0.25점 • 일·생활 균형 등 관련 조례 없음: 0.00점
일·생활 균형을 위한 지자체장 의지	-
담당조직 유무	- 담당조직 형태 • 시·도청에 일·생활 균형과(팀) 설치: 1.00점 • 시·도청 관련과(팀)를 설치하고, 2명 이상의 전담 공무원 배치: 0.75점 • 시·도청 관련과(팀)를 설치하고, 1명 이하의 전담 공무원 배치: 0.50점 • 외청, 사업소에 담당 조직 설치: 0.25점 • 담당 조직 또는 담당자 없음: 0.00점 ※ 시·도청 담당 조직 이외에 일·생활 균형, 일·가정양립 관련 센터, TF, 위원회를 운영할 경우, 해당 조직형태별로 0.02점 부여
일·생활 균형 관련 교육·컨설팅	-
지역사회 가족문화 관련 시설	시설제공률=공연전시시설~공공체육시설 수/인구수(17.7.1 주민등록인구)*1,000

자료: 전기택 외, 『지자체 일·생활 균형 관련 실태진단 및 역할 강화방안 연구』, 고용노동부, 2018, p. 120 〈표 V-2〉

2017년 지수산출과 관련한 특이사항은 다음과 같다. 우선 일 영역의 유연근무제도 도입률, 유연근무제도 이용률은 현재 해당 지표의 통계자료가 생산되지 않아 해당 지표의 지수값을 산출하지 않았다. 또한 시·도 조사 결과, 맞벌이부모 우대제도 유무는 지표에서 제외하였고, 생활 영역의 남성 가사노동시간과 여성 가사노동시간은 남성의 가사노동 분담 실태 파악이라는 측면에서 남녀 가사노동시간 중 남성 가사노동시간 비중으로 지표를 변경함으로써 지표수가 26개에서 24개로 줄었다. 마지막으로 제도 영역의 기존 배우자 출산휴가 이용자 수는 사업체 수준에서의 배우자 출산휴가 이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 이용(시행업체)으로 변경하였다.

〈표 II-3〉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표 산출 현황

영역		지표명	산출 여부	미산출 사유
일 (5개)		총근로시간	○	-
		초과근로시간	○	-
		휴가기간(1년간 사용한 휴가기간)	○	-
		유연근무제도 도입률	×	자료 미생산
		유연근무제도 이용률	×	자료 미생산
생활 (7개)	가족 (4개)	남성 가사노동시간 비중	○	-
		여성취업에 대한 견해	○	-
		가사분담에 대한 견해	○	-
		일과 가족생활 우선도	○	-
	여가 (3개)	여가시간(평일)	○	-
		여가시간 충분도(평일)	○	-
		일·여가생활 균형 정도	○	-
제도 (7개)		여성 육아휴직 이용(시행기업)	○	-
		남성 육아휴직 이용(시행기업)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이용(시행기업)	○	-
		배우자 출산휴가 이용(시행기업)	×	자료 미생산
		국공립보육시설 설치비율	○	-
		초등돌봄교실 이용률	○	-
		일·가정 양립 제도 인지도	○	-
지자체의 관심도 (5개)		일·생활 균형 조례 여부	○	-
		지자체장의 의지	×	자료 불충분
		담당조직 유무	○	-
		일·생활 균형 관련 교육·컨설팅	×	자료 불충분
		지역사회 가족문화 관련 시설 현황	○	-

자료: 전기택 외, 『지자체 일·생활 균형 관련 실태진단 및 역할 강화방안 연구』, 고용노동부, 2018, p. 120
〈표 V-2〉

나. 2018년 지수 산출

1) 자료원 및 지표 생산방식 개선

2018년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 산출을 위해 자료원 및 지표 생산방식에 있어서 몇 가지 변화가 있었다.

먼저 2017년 지수 산출 당시 자료가 불충분하여 생산하지 않았던 ‘일 영역’의 유연 근무제 도입률,¹⁾ 유연근무제 이용률, ‘제도 영역’의 배우자 출산휴가 이용(시행기업)에 대해 2018년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하였는데, 사업체 조사자료를 활용하고,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 지표도 사업체 기준으로 산출하기 때문에 유연근무제 도입 및 이용률 역시 사업체를 기준으로 산출하였다. 구체적인 산출방식은 <표 II-4>와 같다.

<표 II-4> 2018년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결과값 이용 지수산출방식

지표	산출식
유연근무제도 도입률	1개 이상의 유연근무제 제도 도입 사업체 수/전체 사업체 수*100(%)
유연근무제도 활용률	1명 이상의 유연근무제 활용 근로자가 있는 사업체 수/전체 사업체 수*100(%)
배우자 출산휴가 이용(시행기업)	1명 이상의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자가 있는 사업체 수/전체 사업체 수*100(%)

자료: 강민정 외, 『2018년 기준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 산출』, 고용노동부, 2019, p. 11 <표 II-1>

다음은 지자체 관심도 영역 지표 중 역시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하는 지표와 관련된 사항이다. 먼저 ‘지자체장의 의지’²⁾는 ‘지자체의 일·생활 균형 제도 확산 노력’을 측정한다는 의미에서 ‘지자체의 일·생활 균형 제도 홍보’로 명칭을 변경하고, 2018년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서 사업체에게 직접 묻는 방식으로 개선해 보기

- 1)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서는 유연근로제도를 근로시간 및 근로장소의 유연성에 따라 시간선택제,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재량근무제(이상 ‘근로시간’에 대한 유연근로)와 원격근무제, 재택근무제(이상 ‘근로장소’에 대한 유연근로) 등 총 6개 제도로 분류해 조사하였는데, 지표의 유연근로제 도입률은 전체 사업체 수 대비 6개 제도 중 1개 이상 도입하였다고 응답한 사업체의 비율로 정의하였음.
- 2) 지자체장의 의지를 시·도 본청의 ‘일·생활 균형 관련 예산’을 통해 측정하고자 하였으나 일·생활 균형의 업무와 관련된 예산의 범위가 확정되어 있지 않고, 여성가족 관련 부서 예산을 중심으로 자료가 취합됨에 따라 추후 평가에서 별도 측정방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2017년 기준 평가에서는 지수값을 산출하지 않음.

12 2022년 기준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 산출

문항에 대해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을 적용하였다.

D13. 귀사는 지난 해('18.1.1~'18.12.31) 지자체로부터 일·생활 균형과 관련된 규정, 지원제도 등에 대한 안내를 몇 번 받아보셨습니까?	
① 5회 이상 → 1.00점	② 3~4회 → 0.66점
③ 1~2회 → 0.33점	④ 받아본 적 없다 → 0.00점

* 산출식(안)=시도별 해당 지역 사업체 평균 점수 산출*100(점)

일·생활 균형 관련 교육 및 컨설팅은 2017년 기준 산출 당시 지자체가 제출한 자료를 통해 실적을 수집하였으나 제출된 자료를 실적으로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마찬가지로 2018년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의 조사 대상 사업체를 통해 지난 1년간 일·생활 균형 관련 교육 및 컨설팅 참여 경험을 조사한 결과를 활용하였다.

D14. 귀사는 지난 해('18.1.1~'18.12.31) 지자체로부터 일·생활 균형과 관련 교육 및 컨설팅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산출식(안)=지자체 일·생활균형 관련 교육 및 컨설팅 경험 사업체 수/전체 사업체 수*100(%)

2) 표준화 방식 및 기준값 설정

표준화 방식은 기준값 거리(Distance to a reference)에 따른 표준화를 통해 기존 통계값을 0~1 사이의 값(도달률)으로 전환하였다.

기존 통계값이 클수록 긍정적인 의미를 갖는 지표는 휴가기간, 남성 가사노동시간 비중, 여성취업에 대한 견해, 가사분담에 대한 견해, 평일 여가시간, 평일 여가시간 충분도, 여성 육아휴직 사용 사업장 비율, 남성 육아휴직 사용 사업장 비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 사업자 비율, 국공립보육시설 설치율, 초등돌봄교실 이용률, 일·가정 양립 제도 인지도, 지자체의 일·생활 균형 제도 홍보, 담당조직 유무, 지역사회 가족문화 관련 시설 등으로 아래의 식 (1)에 따라 표준화하였다.

$$I_p = \frac{\text{해당 지자체 통계값}}{\text{기준값}} \quad (1)$$

반면 기존 통계값이 클수록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 지표는 총근로시간, 초과근로시간, 일·가족생활 우선도, 일·여가생활 균형 정도 등으로 아래의 식 (2)에 따라 표준화하였다.

$$I_n = \frac{\text{기준값}}{\text{해당지자체 통계값}} \quad (2)$$

다음으로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표별 기준값은 총근로시간, 휴가기간, 남성 가사노동시간 비중, 여가시간충분도, 담당조직 유무 등을 제외하고는 최근 10년 통계 등 가용한 기존 연도 자료를 바탕으로 MS-EXCEL의 추세(trend) 함수를 활용하여 추정한 2023년 예측값 등을 적용하였고, 일·생활 균형 조례 유무는 통계값 자체가 0~1 사이의 값을 가지므로 표준화를 하지 않고, 기존 통계값을 적용하였다. 다만 세종특별자치시의 총근로시간, 초과근로시간, 남녀 가사노동시간, 그리고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값을 활용하는 지표의 경우 통계값이 충청남도과 합쳐져서 충청남도 값으로 발표되므로, 충청남도과 세종특별자치시의 값을 동일하게 부여하였다.

2018년 지수 산출과 관련해서 2018년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한 지표(‘유연근무제 도입률’, ‘유연근무제 활용률’, ‘배우자출산휴가 이용(시행기업)’, ‘지자체의 일·생활 균형 제도 안내’, ‘일·생활 균형 관련 교육 및 컨설팅’)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값 설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했다. 이는 과거값 축적이 미비하여 추세함수를 이용한 2023년 추정치를 활용할 수 없고, 이상적인 통계값의 기준을 적용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2018년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한 지표에 대해서는 공통으로 조사 결과의 최대값에 15%를 가산한 값으로 적용하였다.³⁾

3) 기준값(안)(공통)=2018년 최대값+(2018년 최대값*0.15)

다. 2019년 지수 산출

1) 주요 쟁점

2019년 지수 산출을 위해 대체로 2018년 지수 산출 당시 적용한 기준을 준용하였다. 다만 몇 가지 쟁점이 있었는데, 일부 지표의 통계값이 미비했고 통계값이 기준값을 초과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2019년 기준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를 산출하기 위해 먼저 통계값을 2019년 기준으로 수집해야 한다. 특히 통계청 『사회조사』의 경우 홀수 해와 짝수 해의 조사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지표 중 홀수 해 조사항목에 해당하는 통계값들은 모두 업데이트해야 한다.

문제는 지표 중 조사항목에서 2019년에 제외된 항목이 존재한다는 것인데, 이는 사회조사의 ‘일·가정 양립 제도 인지도’이다. 2017년까지 항목에 포함되어 있었던 일·가정 양립 제도 인지도는 총 7개의 제도(출산(전후)휴가제, 배우자출산휴가제, 육아휴직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직장보육지원, 가족돌봄휴직제, 유연근무제)에 대해 ‘알고 있다’와 ‘모른다’ 두 개의 응답 중 고르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종전에는 13세 이상 인구로 제한하여 ‘알고 있다’에 ‘1’, ‘모른다’에 ‘0’을 부여하여 값을 모두 합한 후 7로 나누고, 이를 100점으로 환산한 값의 지역별 평균값을 통계값으로 부여하였다. 그러나 2019년부터 사회조사를 대체할 자료원을 새로 찾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사업체 조사이긴 하지만 제도 인지도에 대한 조사항목이 있는 고용노동부의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지수 산출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의 인지도 항목 중 사회조사와 일치하는 항목을 선정하였는데, 출산휴가, 배우자출산휴가, 육아휴직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가족돌봄휴직제 등 총 5개 항목이다.

〈표 II-5〉 ‘일·가정 양립 제도 인지도’ 조사 통계 차이점

구분	통계청 『사회조사』	고용노동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조사대상	일반 국민	사업체 인사담당자
인지도 대상 제도	출산(전후)휴가제, 배우자출산휴가제, 육아휴직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직장보육지원, 가족돌봄휴직제, 유연근무제	출산휴가제, 배우자출산휴가제, 육아휴직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가족돌봄휴직제
응답 척도	‘알고 있다’, ‘모른다’	‘잘 알고 있다’, ‘대충 알고 있다’, ‘들어본 적은 있다’, ‘모른다’

문제는 사회조사와 다르게 각 항목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대충 알고 있다’, ‘들어본 적은 있다’, ‘모른다’ 등 4점 척도로 질문이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즉, ‘알고 있다’의 범위를 어느 척도로 정의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했다.

이에 2017년 사회조사의 일·가정 양립 제도 인지도와 관련한 지역별 평균값을 산출하여 다음의 <표 II-6>과 같이 각각의 시나리오별 값과 비교하였다. 그 결과 평균값이 가장 근사한 시나리오 2에 따라 통계값을 산출하였다.

<표 II-6> 시나리오별 평균값 비교

시나리오(제도 ‘인지’=1)		2017년 기준 통계청 『사회조사』	2019년 기준 고용노동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1	잘 알고 있다, 대충 알고 있다, 들어본 적은 있다	60.5점	84.6점
#2	잘 알고 있다, 대충 알고 있다		65.1점
#3	잘 알고 있다		40.7점

다음은 일부 지역에 대해 통계값이 기준값을 초과하여 도달률이 ‘1’을 초과한 곳이 일부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는 예상보다 기준값에 빨리 도달한 곳으로, 유연근무제도 이용률 지표의 강원도, 남성 육아휴직 사용 사업장 비율 지표의 서울시와 세종시, 국공립 보육시설 설치율 지표의 서울시, 배우자출산휴가 사용 사업체 비율 지표의 충청북도 등이다. ‘1’을 초과한 경우는 도달률을 ‘1’로 고정하여 점수를 부여하였다.

2) 지수 산출과정

지수를 산출하기 위해 먼저 각 지표별 통계값을 2019년 기준 최근 값으로 업데이트를 했다. 또한 지자체 관심도 영역에 대한 자료요청을 공문으로 실시하였는데, 일·생활 균형 관련 담당조직(비상설 기구 포함)에 대한 자료 요청을 하고, 관련 조례를 ‘자치법규 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을 통해 수집하였다.

지역별 지표점수와 지역별 영역점수는 아래와 같이 산출되었다.

- 지역별 지표점수 산출=표준화 값×종합가중치
- 지역별 영역점수 산출=각 영역 지표점수의 합×100

라. 2020년 이후 지수 산출

2020년부터는 2019년과 동일한 절차를 통해 각 기준년도의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를 산출하고 있다. 다만 2020년 기준 일·생활 균형 지수 산출 과정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와 충청남도의 총근로시간과 초과근로시간 통계값을 분리하여 적용하였다. 이것은 총근로시간과 초과근로시간의 자료원인 고용노동부의 「시도별 임금 및 근로시간 보고서」의 세종특별자치시의 통계값이 2020년 기준 조사 결과부터 제공되었기 때문이다.

〈표 II-7〉 지표별 자료원 및 기준값(2020년~)

영역		지표명	자료원	기준값	비고
일 (5개)		총근로시간	시·도별 임금 및 근로시간보고서 - 2020년 이전: 세종, 충남 동일	150시간	1,800시간/12개월
		초과근로 시간	- 2020년 이후: 세종, 충남 분리	2.0시간	2023년 추정값
		휴가기간 (1년간 사용한 휴가기간)	국민여가활동조사	15일	2017년 근로자 평균연차 휴가부여일수(15.1일)
		유연근무제도 도입률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세종, 충남 통합)	36.4%	일·가정양립실태조사 2018년 최대값의 15% 가산
		유연근무제도 이용률		21.6%	
생활 (7)	가족 (4개)	남성 가사노동시간 비중	생활시간조사(공표주기 5년)	0.5	남성 가사노동시간 /전체 가사노동시간
		여성취업에 대한 견해	사회조사(홀수해)	81.2%	2023년 추정값
		가사분담에 대한 견해	사회조사(짝수해)	74.1%	2023년 추정값
		일과 가족생활 우선도	사회조사(홀수해)	12.5%	2023년 추정값
	여가 (3개)	여가시간(평일)	국민여가활동조사	5.69시간	2023년 추정값
		여가시간 충분도(평일)	국민여가활동조사	100점	7점 만점 기준
		일·여가생활 균형 정도	국민여가활동조사	10.0%	2023년 추정값
제도 (7개)		여성 육아휴직 이용(시행기업)	고용보험DB	2.60%	2023년 추정값
		남성 육아휴직 이용(시행기업)	고용보험DB	0.59%	2023년 추정값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이용 (시행기업)	고용보험DB	0.37%	2023년 추정값

영역	지표명	자료원	기준값	비고
	배우자 출산휴가 이용 (시행기업)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세종, 충남 통합)	9.4%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2018년 최대값의 15% 가산
	국공립보육시설 설치비율	보육통계	25.6%	2023년 추정값
	초등돌봄교실 이용률	학교알리미	24.9%	2023년 추정값
	일·가정 양립 제도 인지도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세종, 충남 통합)	81.6점	2023년 추정값
지자체 관심도 (5개)	일·생활 균형 조례 유무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1.0점	일·생활 균형 조례 제정, 근로자(시민) 및 기업지원 명시 만점 (1점)
	담당조직 유무	시·도 홈페이지(조직도) 및 관련 자료	1.1점	담당조직 형태 만점 (1점)+관련 조직 5개
	지자체의 일·생활 균형 제도 홍보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세종, 충남 통합)	19.9점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2018년 최대값의 15% 가산
	일·생활 균형 관련 교육·컨설팅		13.8%	
	지역사회 가족문화 관련 시설 현황	문화체육관광부 등록공연장 현황 등	28.06개 (인구 천 명당)	2023년 추정값

III

2022년 기준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 산출 결과

- | | |
|-------------------------------------|----|
| 1. 2022년 기준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
산출 결과 | 21 |
| 2. 2021년 및 2022년 지수 비교 | 34 |

1. 2022년 기준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 산출 결과

2022년 기준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 산출 결과 전국 평균은 58.7점(100.0점 만점), 특별/광역시 평균 60.6점, 도 평균 57.0점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위 5개 시·도와 중위 7개 시·도 평균 총점은 각각 62.4점과 58.9점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의 점수는 각 지표별로 설정한 기준값에 2022년 현재 도달한 정도를 의미한다. 영역별로 기준값 도달 정도(영역별 총점 대비 전국 평균 점수)를 살펴보면, 생활 영역 55.5%, 지자체 관심도 영역 44.7%, 일 영역 66.1%, 제도 영역이 68.4%로 이전 연도와 동일하게 제도 영역의 도달률이 가장 높고, 지자체 관심도 영역의 도달률이 가장 낮았다. 총점 기준으로 서울, 부산, 세종, 충북, 대구 등 5개 시·도가 상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시간, 휴가, 유연근무제 등을 평가하는 일 영역의 점수는 전국 평균 14.6점(22.1점 만점), 특별/광역시 평균 14.9점, 도 평균 14.4점, 상위권과 중위권의 평균은 각각 15.9점과 14.6점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제주, 서울, 광주, 울산, 충북 등 5개 시·도가 상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 가사분담, 여성 취업에 대한 견해, 여가, 일과 가족생활 중 우선도 등을 평가하는 생활 영역의 점수는 전국 평균 16.7점(30.1점 만점), 특별/광역시 평균 16.6점, 도 평균 16.9점, 생활 영역의 상위권과 중위권 평균은 각각 17.7점 16.6점으로 나타났다. 또한 생활 영역의 상위권 시·도는 부산, 충남, 충북, 제주, 경남 등으로 나타났다.

남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보육 및 초등 돌봄교실 등 제도적인 측면을 평가하는 제도 영역의 점수는 전국 평균 17.1점(25.0점 만점), 특별/광역시 평균 18.7점, 도 평균 15.6점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제도 영역 상위권과 중위권의 평균 점수는 각각 19.6점과 16.7점이며, 세종, 서울, 인천, 대구, 부산 등 5개 시·도가 상위권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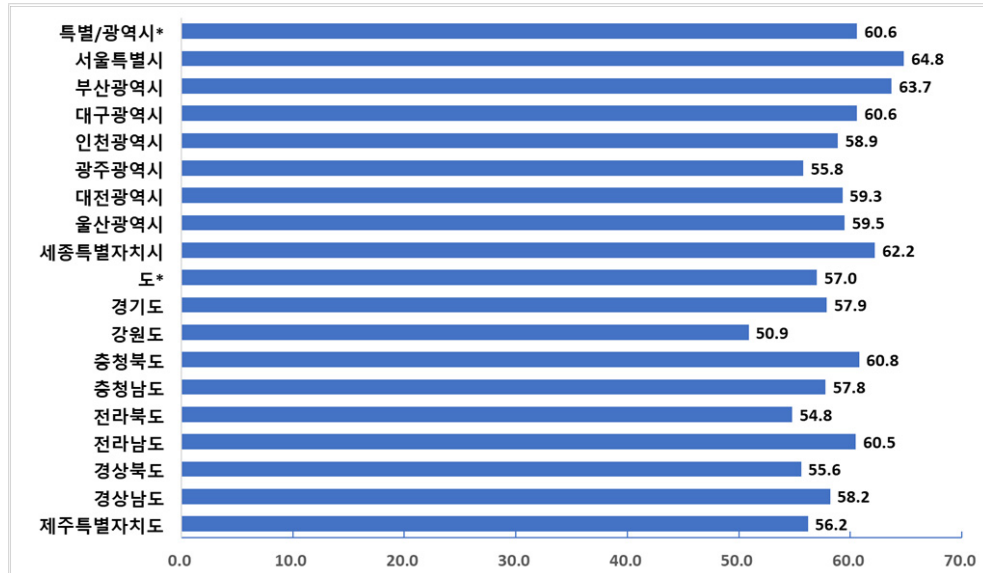
지자체 관심도 영역의 점수는 전국 평균 10.2점(22.8점 만점), 특별/광역시 평균 10.4점, 도 평균 10.1점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자체 관심도 영역의 상위권과 중위권 평균 점수는 각각 12.1점과 10.5점이며, 부산, 전남, 경남, 충북, 대전 등 5개 시·도가 상위권으로 나타났다(표 Ⅲ-1), [그림 Ⅲ-1]~[그림 Ⅲ-5] 참고).

〈표 Ⅲ-1〉 2022년 기준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 산출 결과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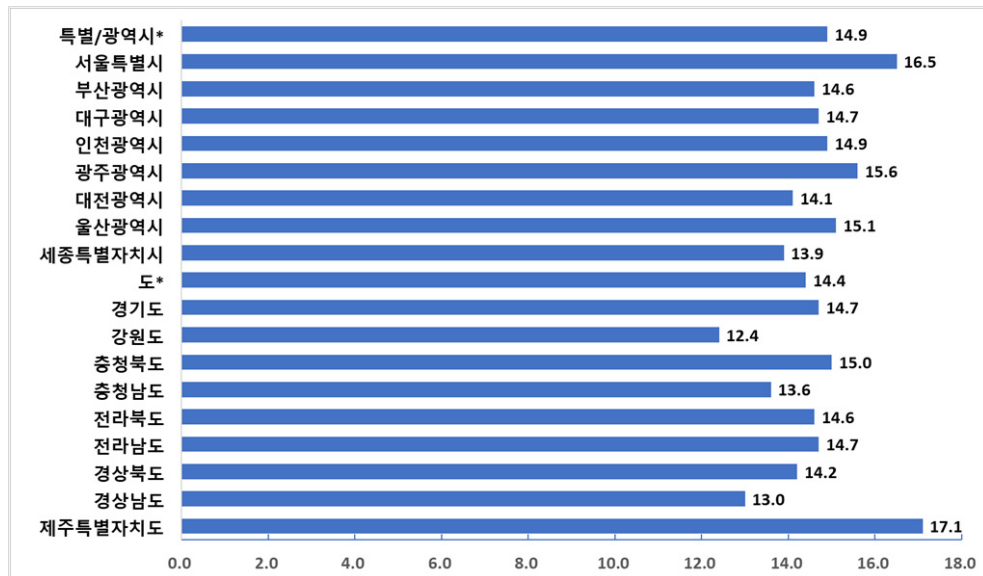
그룹	순위	총점 (100.0점)		일 (22.1점)		생활 (30.1점)		제도 (25.0점)		지자체 관심도 (22.8점)	
		전국	58.7	전국	14.6	전국	16.7	전국	17.1	전국	10.2
그룹	특별/ 광역시	60.6		특별/ 광역시	14.9	특별/ 광역시	16.6	특별/ 광역시	18.7	특별/ 광역시	10.4
	도	57.0		도	14.4	도	16.9	도	15.6	도	10.1
	상위	62.4		상위	15.9	상위	17.7	상위	19.6	상위	12.1
	중위	58.9		중위	14.6	중위	16.6	중위	16.7	중위	10.5
	하위	54.7		하위	13.4	하위	15.9	하위	15.0	하위	7.9
상위	1	서울	64.8	제주	17.1	부산	18.3	세종	21.6	부산	12.8
	2	부산	63.7	서울	16.5	충남	17.7	서울	21.0	전남	12.6
	3	세종	62.2	광주	15.6	충북	17.7	인천	19.0	경남	12.0
	4	충북	60.8	울산	15.1	제주	17.5	대구	18.3	충북	11.6
	5	대구	60.6	충북	15.0	경남	17.4	부산	18.1	대전	11.4
중위	6	전남	60.5	인천	14.9	광주	17.1	대전	18.0	대구	11.2
	7	울산	59.5	대구	14.7	전남	16.7	울산	18.0	경기	11.0
	8	대전	59.3	전남	14.7	전북	16.7	경기	16.6	서울	11.0
	9	인천	58.9	경기	14.7	울산	16.5	충북	16.5	세종	10.5
	10	경남	58.2	전북	14.6	대구	16.4	전남	16.5	충남	10.5
	11	경기	57.9	부산	14.6	서울	16.3	충남	15.9	울산	9.9
	12	충남	57.8	경북	14.2	강원	16.3	경북	15.7	경북	9.7
하위	13	제주	56.2	대전	14.1	세종	16.1	경남	15.7	인천	8.9
	14	광주	55.8	세종	13.9	인천	16.0	광주	15.6	전북	8.7
	15	경북	55.6	충남	13.6	경북	15.9	강원	15.0	광주	7.5
	16	전북	54.8	경남	13.0	대전	15.8	전북	14.7	제주	7.5
	17	강원	50.9	강원	12.4	경기	15.7	제주	14.0	강원	7.2

(단위: 점)



[그림 Ⅲ-1] 2022년 기준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 산출 결과: 총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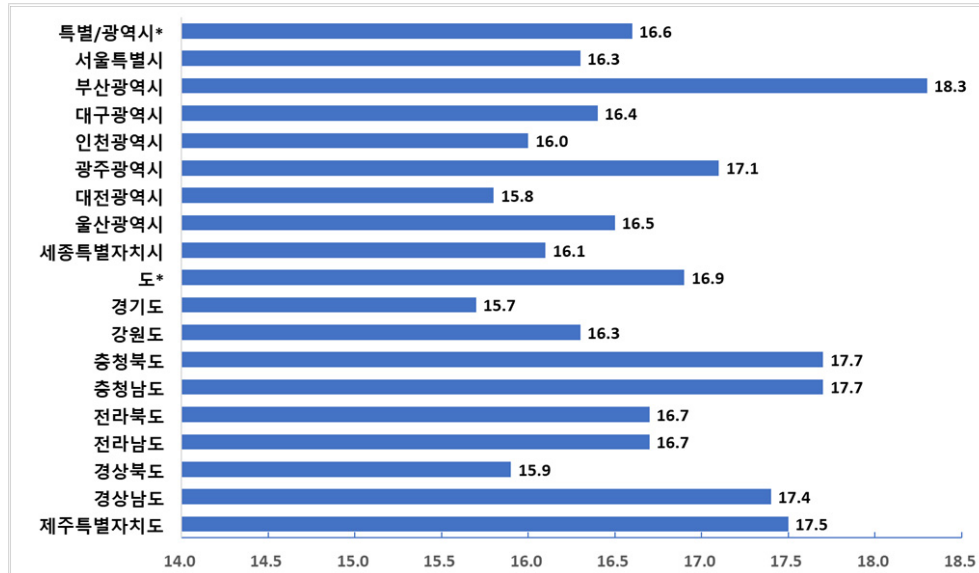
(단위: 점)



[그림 Ⅲ-2] 2022년 기준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 산출 결과: 일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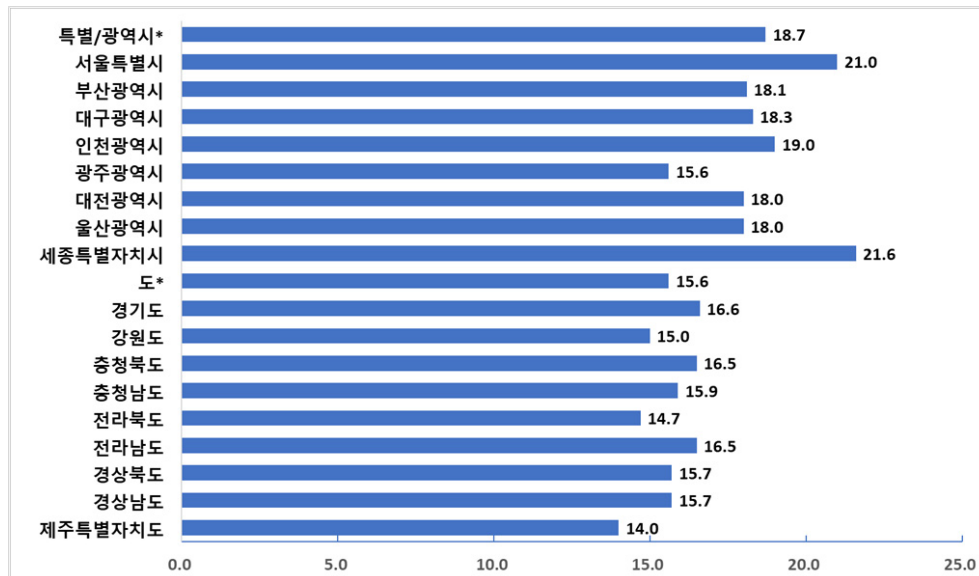
24 2022년 기준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 산출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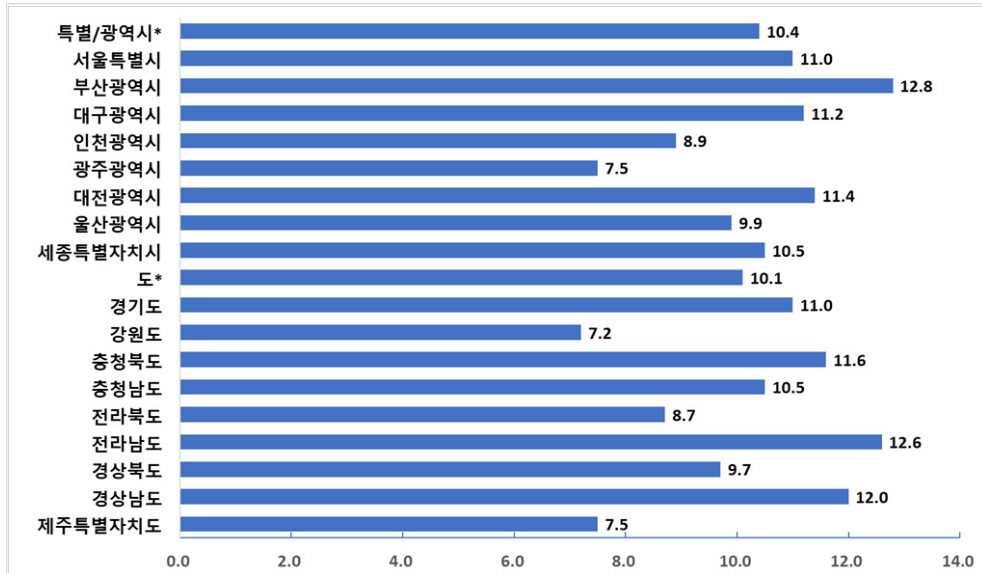
[그림 III-3] 2022년 기준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 산출 결과: 생활 영역

(단위: 점)



[그림 III-4] 2022년 기준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 산출 결과: 제도 영역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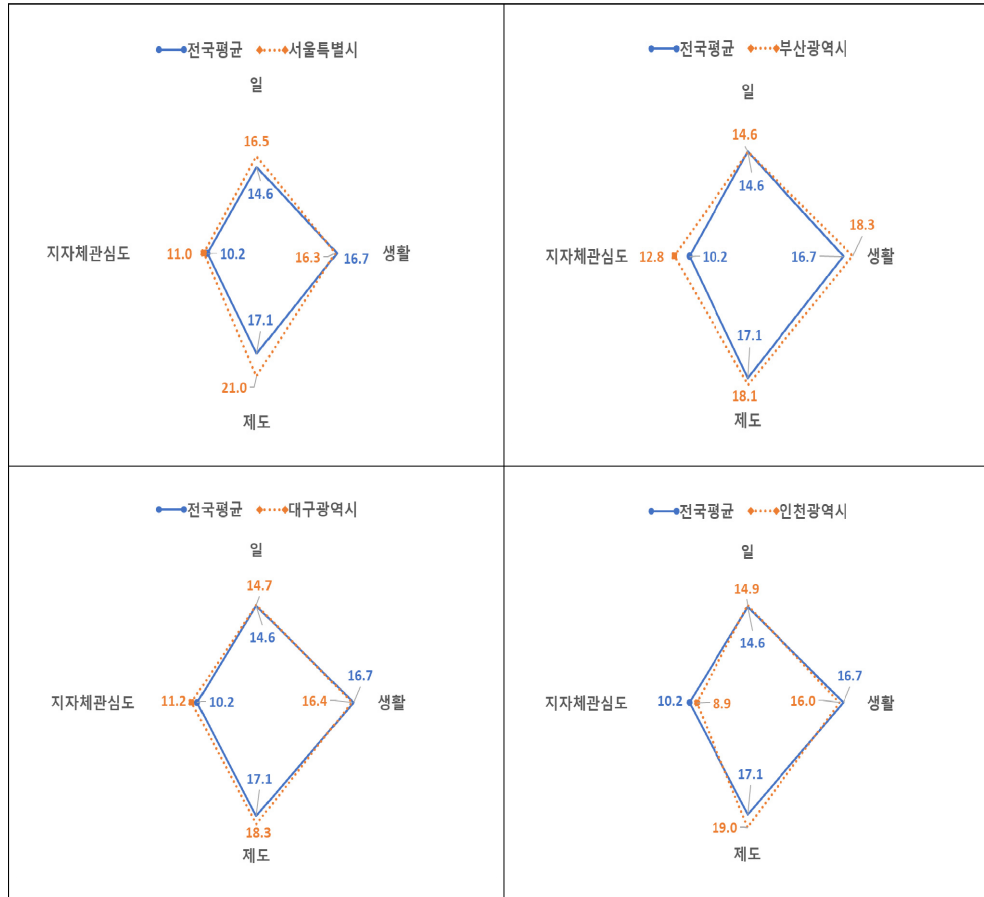


[그림 Ⅲ-5] 2022년 기준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 산출 결과: 지자체 관심도 영역

한편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 산출 결과를 시·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일, 제도, 지자체 관심도 영역 점수는 전국 평균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생활 영역 점수는 전국 평균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서울특별시의 일 영역 점수는 16.5점으로 전국 평균 14.6점, 특별/광역시 평균 14.9점, 상위권 평균 15.9점에 비해 각각 1.9점, 1.6점, 0.6점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생활 영역의 점수는 16.3점으로 전국 평균 16.7점에 비해 0.4점 낮고, 특별/광역시 평균 16.6점에 비해 0.3점, 상위권 평균 17.7점에 비해 1.4점 낮게 나타났다. 제도 영역의 경우 서울특별시의 점수는 21.0점으로 전국 평균 17.1점과 특별/광역시 평균 18.7점, 상위권 평균 19.6점에 비해 각각 3.9점과 2.3점, 1.4점 높게 나타났다. 서울특별시의 지자체 관심도 영역 점수는 11.0점으로 전국 평균 10.2점과 특별/광역시 평균 10.4점에 비해 각각 0.8점, 0.6점 높고, 상위권 평균 12.1점에 비해 1.1점 낮게 나타났다([그림 Ⅲ-6], <표 Ⅲ-1> 참조).

(단위: 점)



[그림 III-6]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 산출 결과: 서울, 부산, 대구, 인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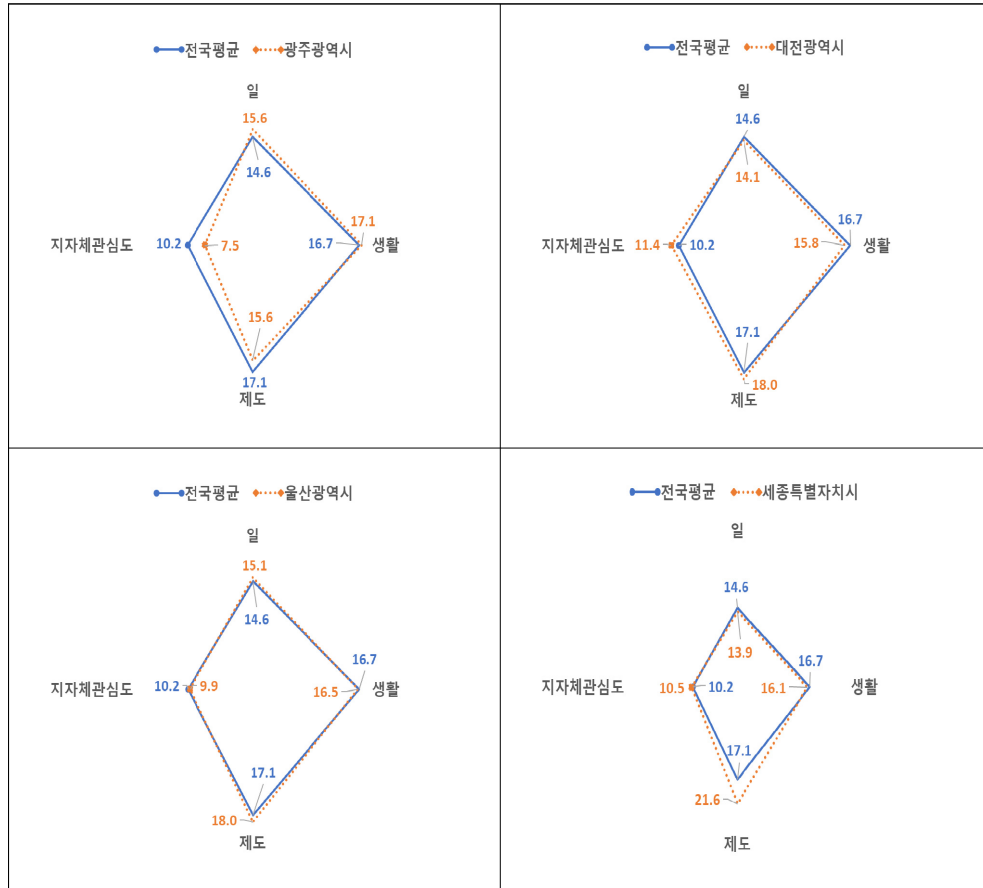
부산광역시의 경우 일영역을 제외한 모든 영역 점수가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지자체 관심도 영역 점수는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하게 높아 일·생활 균형에 대한 지자체 관심이 높은 지역으로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부산광역시의 일 영역 점수는 14.6점으로 전국 평균 14.6점과 동일하고, 특별/광역시 평균 14.9점과 상위권 평균 15.9점에 비해 각각 0.3점과 1.3점이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생활 영역의 점수는 18.3점으로 전국 평균 16.7점에 비해 1.6점 높고, 특별/광역시 평균 16.6점보다 1.7점, 상위권 평균 17.7점에 비해 0.6점 높게 나타났다. 제도 영역의 경우 부산광역시의 점수는 18.1점으로 전국 평균 17.1점에 비해 1.0점이 높고, 특별/광역시 평균 18.7점과 상위권 평균 19.6점에 비해 각각 0.6점과 1.5점 낮게 나타났다. 부산광역시의 지자체 관심도 영역 점수는 12.8점으로 전국 평균 10.2점과 특별/광역시 평균 10.4점, 상위권

평균 12.1점에 비해 각각 2.6점, 2.4점, 0.7점이 높게 나타났다(그림 Ⅲ-6], 〈표 Ⅲ-1〉 참조).

대구광역시의 경우 전년도와 동일하게 일 영역, 제도 영역과 지자체 관심도 영역 점수가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대구광역시의 일 영역 점수는 14.7점으로 전국 평균 14.6점보다 0.1점 높지만, 특별/광역시 평균 14.9점과 상위권 평균 15.9점에 비해 각각 0.2점과 1.2점이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생활 영역의 점수는 16.4점으로 전국 평균 16.7점에 비해 0.3점 낮고, 특별/광역시 평균 16.6과 상위권 평균 17.7점에 비해 0.2점과 1.3점이 낮게 나타났다. 제도 영역의 경우 대구광역시의 점수는 18.3점으로 전국 평균 17.1점보다 1.2점이 높지만, 특별/광역시 평균 18.7점과 상위권 평균 19.6점에 비해 각각 0.4점과 1.3점이 낮게 나타났다. 대구광역시의 지자체 관심도 영역 점수는 11.2점으로 전국 평균 10.2점과 특별/광역시 평균 10.4점에 비해 각각 1.0점과 0.8점이 높지만, 상위권 평균 12.1점에 비해 0.9점이 낮게 나타났다(그림 Ⅲ-6], 〈표 Ⅲ-1〉 참조).

인천광역시의 경우 일 영역, 제도 영역 점수가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인천광역시의 일 영역 점수는 14.9점으로 전국 평균 14.6점보다 0.3점 높고, 특별/광역시 평균 14.9점과 동일하지만, 상위권 평균 15.9점에 비해 1.0점이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생활 영역의 점수는 16.0점으로 전국 평균 16.7점에 비해 0.7점 낮고, 특별/광역시 평균 16.6점과 상위권 평균 17.7점에 비해 0.6점과 1.7점이 낮게 나타났다. 제도 영역의 경우 인천광역시는 19.0점으로 전국 평균 17.1점, 특별/광역시 평균 18.7점에 비해 각각 1.9점과 0.3점이 높지만, 상위권 평균 19.6점에 비해 0.6점이 낮게 나타났다. 인천광역시의 지자체 관심도 영역 점수는 8.9점으로 전국 평균 10.2점과 특별/광역시 평균 10.4점, 상위권 평균 12.1점에 비해 각각 1.3점, 1.5점, 3.2점이 낮게 나타났다(그림 Ⅲ-6], 〈표 Ⅲ-1〉 참조).

(단위: 점)



[그림 III-7]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 산출 결과: 광주, 대전, 울산, 세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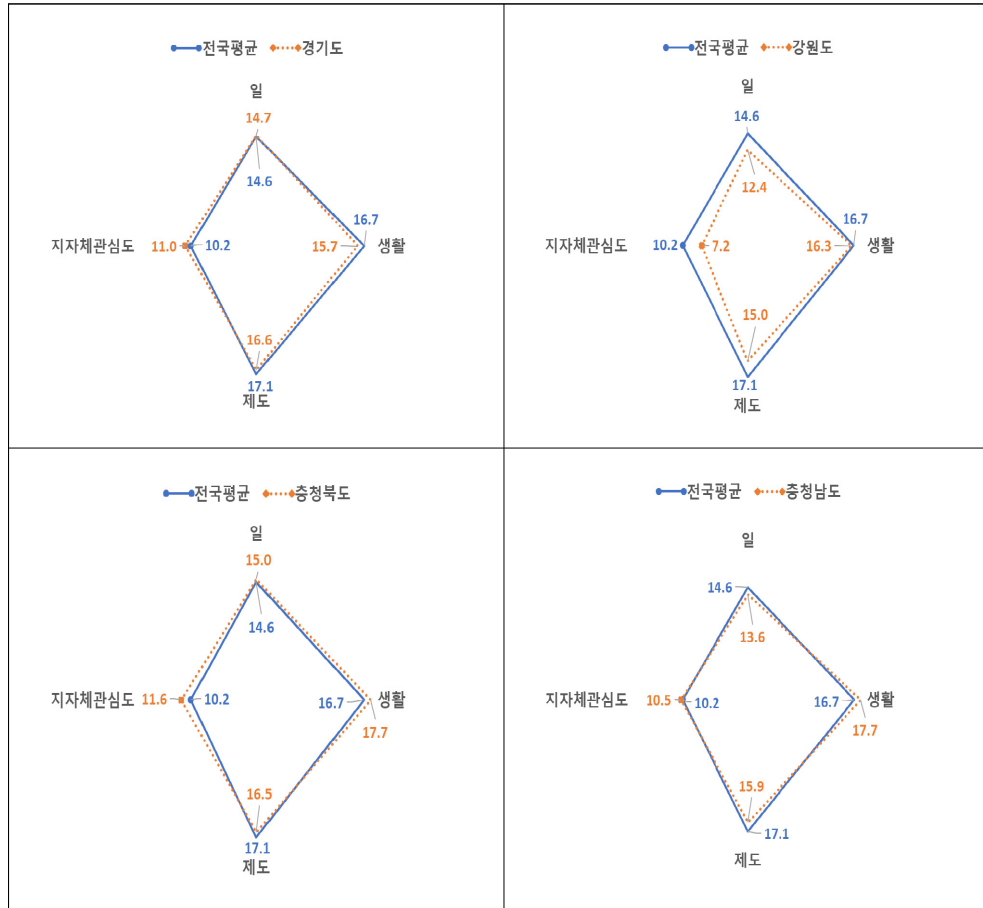
다음으로 광주광역시의 경우 일 영역, 생활 영역 점수가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광주광역시의 일 영역 점수는 15.6점으로 전국 평균 14.6점보다 1.0점 높고, 특별/광역시 평균 14.9점보다 0.7점이 높지만, 상위권 평균 15.9점에 비해 0.3점이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생활 영역의 점수는 17.1점으로 전국 평균 16.7점과 특별/광역시 평균 16.6점에 비해 각각 0.4점과 0.5점이 높지만, 상위권 평균 17.7점에 비해 0.6점이 낮게 나타났다. 제도 영역의 경우 광주광역시는 15.6점으로 전국 평균 17.1점, 특별/광역시 평균 18.7점, 상위권 평균 19.6점에 비해 각각 1.5점, 3.1점, 4.0점이 낮게 나타났다. 광주광역시의 지자체 관심도 영역 점수는 7.5점으로 전국 평균 10.2점, 특별/광역시 평균 10.4점, 상위권 평균 12.1점에 비해 각각 2.7점, 2.9점, 4.6점이 낮게 나타났다([그림 III-7], <표 III-1> 참조).

다음으로 대전광역시의 경우 제도 영역, 지자체 관심도 영역 점수가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대전광역시의 일 영역 점수는 14.1점으로 전국 평균 14.6점, 특별/광역시 평균 14.9점, 상위권 평균 15.9점에 비해 각각 0.5점, 0.8점, 1.8점이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생활 영역의 점수는 15.8점으로 전국 평균 16.7점, 특별/광역시 평균 16.6점, 상위권 평균 17.7점에 비해 각각 0.9점, 0.8점, 1.9점이 낮게 나타났다. 제도 영역의 경우 대전광역시는 18.0점으로 전국 평균 17.1점에 비해 0.9점 높지만, 특별/광역시 평균 18.7점, 상위권 평균 19.6점에 비해 각각 0.7점, 1.6점이 낮게 나타났다. 대전광역시의 지자체 관심도 영역 점수는 11.4점으로 전국 평균 10.2점, 특별/광역시 평균 10.4점에 비해 각각 1.2점, 1.0점 높지만, 상위권 평균 12.1점에 비해 0.7점이 낮게 나타났다(그림 Ⅲ-7, <표 Ⅲ-1> 참조).

울산광역시의 경우 일 영역, 제도 영역 점수가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울산광역시의 일 영역 점수는 15.1점으로 전국 평균 14.6점, 특별/광역시 평균 14.9점에 비해 각각 0.5점과 0.2점이 높고, 상위권 평균 15.9점에 비해 0.8점이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생활 영역의 점수는 16.5점으로 전국 평균 16.7점, 특별/광역시 평균 16.6점, 상위권 평균 17.7점에 비해 각각 0.2점, 0.1점, 1.2점이 낮게 나타났다. 제도 영역의 경우 울산광역시는 18.0점으로 전국 평균 17.1점에 비해 0.9점 높지만, 특별/광역시 평균 18.7점, 상위권 평균 19.6점에 비해 각각 0.7점, 1.6점이 낮게 나타났다. 울산광역시의 지자체 관심도 영역 점수는 9.9점으로 전국 평균 10.2점, 특별/광역시 평균 10.4점, 상위권 평균 12.1점에 비해 각각 0.3점, 0.5점, 2.2점이 낮게 나타났다(그림 Ⅲ-7, <표 Ⅲ-1> 참조).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제도 영역과 지자체 관심도 영역 점수가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세종특별자치시의 일 영역 점수는 13.9점으로 전국 평균 14.6점, 특별/광역시 평균 14.9점, 상위권 평균 15.9점에 비해 각각 0.7점, 1.0점, 2.0점이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생활 영역의 점수는 16.1점으로 전국 평균 16.7점, 특별/광역시 평균 16.6점, 상위권 평균 17.7점에 비해 각각 0.6점, 0.5점, 1.6점이 낮게 나타났다. 제도 영역의 경우 세종특별자치시는 21.6점으로 전국 평균 17.1점, 특별/광역시 평균 18.7점, 상위권 평균 19.6점에 비해 각각 4.5점, 2.9점, 2.0점이 높게 나타났다. 세종특별자치시의 지자체 관심도 영역 점수는 10.5점으로 전국 평균 10.2점, 특별/광역시 평균 10.4점에 비해 각각 0.3점과 0.1점이 높지만, 상위권 평균 12.1점에 비해 1.6점이 낮게 나타났다(그림 Ⅲ-7, <표 Ⅲ-1> 참조).

(단위: 점)



[그림 III-8]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 산출 결과: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기도의 경우 일 영역과 지자체 관심도 영역 점수가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경기도의 일 영역 점수는 14.7점으로 전국 평균 14.6점, 도 평균 14.4점에 비해 각각 0.1점과 0.3점이 높고, 상위권 평균 15.9점에 비해 1.2점이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생활 영역의 점수는 15.7점으로 전국 평균 16.7점, 도 평균 16.9점, 상위권 평균 17.7점에 비해 각각 1.0점, 1.2점, 2.0점이 낮게 나타났다. 제도 영역의 경우 경기도는 16.6점으로 전국 평균 17.1점과 상위권 평균 19.6점에 비해 각각 0.5점, 3.0점이 낮고, 도 평균 15.6점에 비해 1.0점이 높게 나타났다. 경기도의 지자체 관심도 영역 점수는 11.0점으로 전국 평균 10.2점, 도 평균 10.1점에 비해 각각 0.8점과 0.9점이 높지만, 상위권 평균 12.1점에 비해 1.1점이 낮게 나타났다(그림 III-8], <표 III-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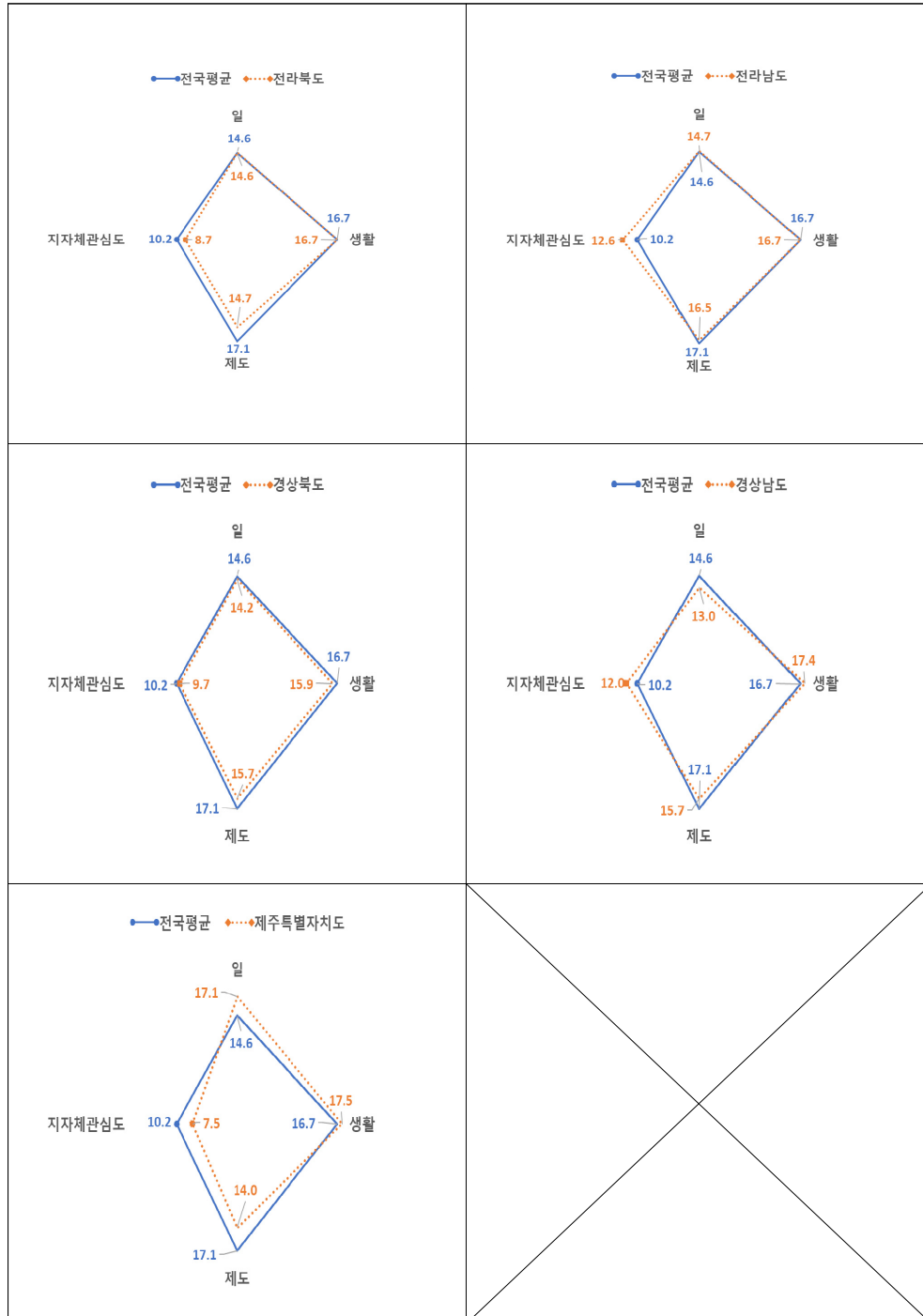
강원도의 경우 모든 영역의 점수가 전국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강원도의 일 영역 점수는 12.4점으로 전국 평균 14.6점, 도 평균 14.4점, 상위권 평균 15.9점에 비해 각각 2.2점과 2.0점, 3.5점이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생활 영역의 점수는 16.3점으로 전국 평균 16.7점, 도 평균 16.9점, 상위권 평균 17.7점에 비해 각각 0.4점, 0.6점, 1.4점이 낮게 나타났다. 제도 영역의 경우 강원도는 15.0점으로 전국 평균 17.1점, 도 평균 15.6점, 상위권 평균 19.6점에 비해 각각 2.1점, 0.6점, 4.6점이 낮게 나타났다. 강원도의 지자체 관심도 영역 점수는 7.2점으로 전국 평균 10.2점, 도 평균 10.1점, 상위권 평균 12.1점에 비해 각각 3.0점과 2.9점, 4.9점이 낮게 나타났다(그림 Ⅲ-8], 〈표 Ⅲ-1〉 참조).

다음으로 충청북도는 제도 영역을 제외한 모든 영역의 점수가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충청북도의 일 영역 점수는 15.0점으로 전국 평균 14.6점, 도 평균 14.4점에 비해 각각 0.4점과 0.6점이 높고, 상위권 평균 15.9점에 비해 0.9점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생활 영역의 점수는 17.7점으로 전국 평균 16.7점, 도 평균 16.9점에 비해 각각 1.0점과 0.8점 높고, 상위권 평균 점수와는 동일하게 나타났다. 제도 영역의 경우 충청북도는 16.5점으로 전국 평균 17.1점과 상위권 평균 19.6점에 비해 각각 0.6점과 3.1점이 낮고, 도 평균 15.6점에 비해 0.9점이 높게 나타났다. 충청북도의 지자체 관심도 영역 점수는 11.6점으로 전국 평균 10.2점, 도 평균 10.1점에 비해 각각 1.4점과 1.5점이 높고, 상위권 평균 12.1점 0.5점이 낮게 나타났다(그림 Ⅲ-8], 〈표 Ⅲ-1〉 참조).

충청남도의 경우 생활 영역과 지자체 관심도 영역 점수는 전국 평균보다 높고, 일 영역과 제도 생활 영역 점수는 전국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충청남도의 일 영역 점수는 13.6점으로 전국 평균 14.6점, 도 평균 14.4점, 상위권 평균 15.9점에 비해 각각 1.0점, 0.8점, 2.3점이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생활 영역의 점수는 17.7점으로 전국 평균 16.7점, 도 평균 16.9점에 비해 각각 1.0점과 0.8점 높고, 상위권 평균 점수와는 동일하게 나타났다. 제도 영역의 경우 충청남도는 15.9점으로 전국 평균 17.1점과 상위권 평균 19.6점에 비해 각각 1.2점과 3.7점이 낮고, 도 평균 15.6점에 비해 0.3점이 높게 나타났다. 충청남도의 지자체 관심도 영역 점수는 10.5점으로 전국 평균 10.2점, 도 평균 10.1점에 비해 각각 0.3점과 0.4점이 높고, 상위권 평균 12.1점에 비해 1.6점이 낮게 나타났다(그림 Ⅲ-8], 〈표 Ⅲ-1〉 참조).

32 2022년 기준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 산출

(단위: 점)



[그림 III-9]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 산출 결과: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라북도의 경우 일과 생활 영역 점수는 전국 평균과 동일하고 제도와 지자체 관심도 영역 점수는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전라북도의 일 영역 점수는 14.6점으로 전국 평균 14.6점과 동일하게 나타났고, 도 평균 14.4점에 비해 0.2점이 높고, 상위권 평균 15.9점에 비해 1.3점이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생활 영역의 점수는 16.7점으로 전국 평균 16.7점과 동일하게 나타났고, 도 평균 16.9점과 상위권 평균 17.7점에 비해 각각 0.2점과 1.0점이 낮게 나타났다. 제도 영역의 경우 전라북도는 14.7점으로 전국 평균 17.1점, 도 평균 15.6점, 상위권 평균 19.6점에 비해 각각 2.4점, 0.9점, 4.9점이 낮게 나타났다. 전라북도의 지자체 관심도 영역 점수는 8.7점으로 전국 평균 10.2점, 도 평균 10.1점, 상위권 평균 12.1점에 비해 각각 1.5점, 1.4점, 3.4점이 낮게 나타났다(그림 III-9], <표 III-1> 참조).

전라남도의 일 영역, 지자체 관심도 영역 점수는 전국 평균보다 높고, 제도 영역 점수는 전국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전라남도의 일 영역 점수는 14.7점으로 전국 평균 14.6점, 도 평균 14.4점에 비해 각각 0.1점과 0.3점이 높고, 상위권 평균 15.9점에 비해 1.2점이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생활 영역의 점수는 16.7점으로 전국 평균 16.7점과 동일하고, 도 평균 16.9점과 상위권 평균 17.7점에 비해 각각 0.2점과 1.0점이 낮게 나타났다. 제도 영역의 경우 전라남도는 16.5점으로 전국 평균 17.1점과 상위권 평균 19.6점에 비해 각각 0.6점과 3.1점이 낮고, 도 평균 15.6점에 비해 0.9점이 높게 나타났다. 전라남도의 지자체 관심도 영역 점수는 12.6점으로 전국 평균 10.2점, 도 평균 10.1점, 상위권 평균 12.1점에 비해 각각 2.4점, 2.5점, 0.5점이 높게 나타났다(그림 III-9], <표 III-1> 참조).

경상북도는 모든 영역의 점수가 전국 평균 점수보다 낮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경상북도의 일 영역 점수는 14.2점으로 전국 평균 14.6점, 도 평균 14.4점, 상위권 평균 15.9점에 비해 각각 0.4점, 0.2점, 1.7점이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생활 영역의 점수는 15.9점으로 전국 평균 16.7점, 도 평균 16.9점, 상위권 평균 17.7점에 비해 각각 0.8점, 1.0점, 1.8점이 낮게 나타났다. 제도 영역의 경우 경상북도는 15.7점으로 전국 평균 17.1점과 상위권 평균 19.6점에 비해 각각 1.4점과 3.9점이 낮고, 도 평균 15.6점에 비해 0.1점이 높게 나타났다. 경상북도의 지자체 관심도 영역 점수는 9.7점으로 전국 평균 10.2점, 도 평균 10.1점, 상위권 평균 12.1점에 비해 각각 0.5점, 0.4점, 2.4점이 낮게 나타났다(그림 III-9], <표 III-1> 참조).

경상남도는 생활 영역과 지자체 관심도 영역의 평균 점수가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경상남도의 일 영역 점수는 13.0점으로 전국 평균 14.6점, 도 평균

14.4점, 상위권 평균 15.9점에 비해 각각 1.6점, 1.4점, 2.9점이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생활 영역의 점수는 17.4점으로 전국 평균 16.7점, 도 평균 16.9점에 비해 각각 0.7점과 0.5점에 비해 높고, 상위권 평균 17.7점보다 0.3점이 낮게 나타났다. 제도 영역의 경우 경상남도는 15.7점으로 전국 평균 17.1점과 상위권 평균 19.6점에 비해 각각 1.4점과 3.9점이 낮고, 도 평균 15.6점에 비해 0.1점이 높게 나타났다. 경상남도의 지자체 관심도 영역 점수는 12.0점으로 전국 평균 10.2점, 도 평균 10.1점에 비해 각각 1.8점과 1.9점이 높고, 상위권 평균 12.1점에 비해 0.1점이 낮게 나타났다(그림 III-9), 〈표 III-1〉 참조).

제주특별자치도는 일과 생활 영역의 평균 점수가 전국 평균 점수보다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일 영역 점수는 17.1점으로 전국 평균 14.6점, 도 평균 14.4점, 상위권 평균 15.9점에 비해 각각 2.5점, 2.7점, 1.2점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생활 영역의 점수는 17.5점으로 전국 평균 16.7점, 도 평균 16.9점에 비해 각각 0.8점과 0.6점에 비해 높고, 상위권 평균에 비해 0.2점이 낮게 나타났다. 제도 영역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는 14.0점으로 전국 평균 17.1점, 도 평균 15.6점, 상위권 평균 19.6점에 비해 각각 3.1점, 1.6점, 5.6점이 낮게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자체 관심도 영역 점수는 7.5점으로 전국 평균 10.2점, 도 평균 10.1점, 상위권 평균 12.1점에 비해 각각 2.7점, 2.6점, 4.6점이 낮게 나타났다(그림 III-9), 〈표 III-1〉 참조).

2. 2021년 및 2022년 지수 비교

가. 총점

여기서는 2022년과 2021년 기준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를 비교한다. 전국 평균 총점은 2022년 58.7점으로 2021년 54.7점 대비 4.0점 증가하였다. 8개 특별/광역시 총점 평균은 60.6점으로 2021년 56.5점에 비해 4.1점 증가하였고, 9개 도의 총점 평균은 2022년 57.0점으로 2021년에 비해 4.0점 증가하였다.

모든 영역에서 전년에 비해 2022년 총점이 증가하였다. 일 영역과 관심도 영역이 전년 대비 각 1.4점 증가하였고, 제도 영역이 0.9점, 생활 영역이 0.3점 증가하였다. 특별/광역시 및 도 평균 역시 일과 관심도 영역에서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였는데, 특히 9개 도의 관심도 총점 평균은 전년 대비 1.7점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2〉 참조).

〈표 Ⅲ-2〉 2021~2022년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 산출 결과

(단위: 점)

지역	2021년					2022년				
	총점	일	생활	제도	관심도	총점	일	생활	제도	관심도
전국평균	54.7	13.2	16.4	16.2	8.8	58.7	14.6	16.7	17.1	10.2
특별/광역시 평균	56.5	13.5	16.3	17.5	9.3	60.6	14.9	16.6	18.7	10.4
서울특별시	62.0	15.9	16.3	20.3	9.5	64.8	16.5	16.3	21.0	11.0
부산광역시	64.1	13.8	18.2	18.2	13.9	63.7	14.6	18.3	18.1	12.8
대구광역시	54.8	13.5	15.1	16.6	9.5	60.6	14.7	16.4	18.3	11.2
인천광역시	50.6	12.1	15.7	15.6	7.2	58.9	14.9	16.0	19.0	8.9
광주광역시	52.2	12.9	16.7	16.1	6.6	55.8	15.6	17.1	15.6	7.5
대전광역시	60.3	16.1	16.2	18.0	10.0	59.3	14.1	15.8	18.0	11.4
울산광역시	47.3	9.8	16.6	16.3	4.6	59.5	15.1	16.5	18.0	9.9
세종특별자치시	60.8	13.9	15.4	18.8	12.7	62.2	13.9	16.1	21.6	10.5
도 평균	53.0	13.0	16.5	15.1	8.4	57.0	14.4	16.9	15.6	10.1
경기도	56.9	12.9	15.9	15.6	12.6	57.9	14.7	15.7	16.6	11.0
강원도	48.9	13.3	16.0	15.1	4.5	50.9	12.4	16.3	15.0	7.2
충청북도	49.4	11.3	16.5	14.7	6.9	60.8	15.0	17.7	16.5	11.6
충청남도	56.0	13.5	15.7	17.9	8.9	57.8	13.6	17.7	15.9	10.5
전라북도	50.9	12.8	16.3	15.3	6.5	54.8	14.6	16.7	14.7	8.7
전라남도	54.9	13.7	15.7	14.2	11.3	60.5	14.7	16.7	16.5	12.6
경상북도	47.3	12.7	15.1	14.6	4.9	55.6	14.2	15.9	15.7	9.7
경상남도	58.1	12.5	16.6	16.4	12.7	58.2	13.0	17.4	15.7	12.0
제주특별자치도	54.8	14.5	21.1	12.0	7.2	56.2	17.1	17.5	14.0	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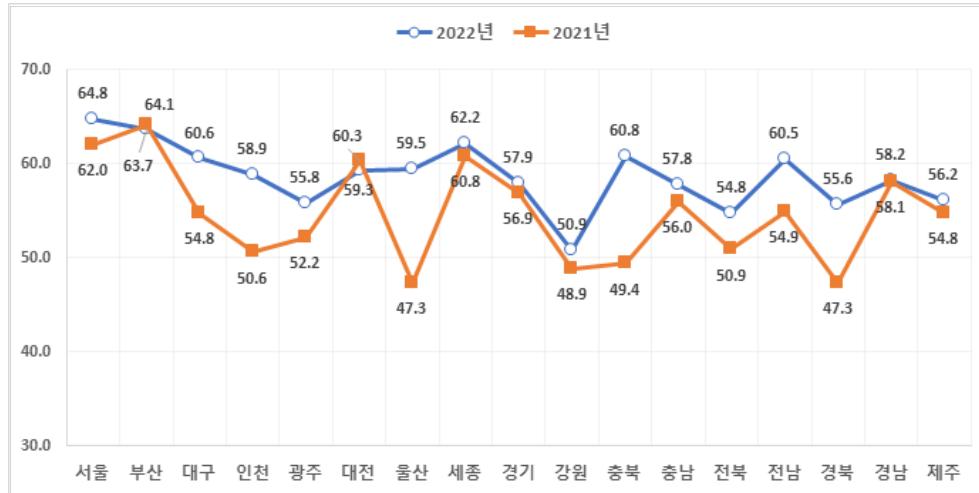
2022년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 총점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로 64.8점이었고, 다음이 부산 63.7점 순이다. 부산은 2021년 64.1점으로 1순위였지만, 2022년 점수가 소폭 감소하면서 2순위를 기록하였다. 2021년 대비 2022년 점수가 가장 크게 높아진 곳은 울산광역시로 일 영역과 관심도 영역에서 각 5.3점씩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표 III-3) 참고). 울산광역시 이외에도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충청북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등의 순위가 상승했고, 부산광역시와 대전광역시를 포함한 일부 지자체는 순위가 하락하거나 정체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3), [그림 III-10] 참고). 순위 면에서는 충청북도가 10계단 상승하여 다른 시·도에 비해 상승폭이 컸다.

〈표 III-3〉 2021-2022년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 점수 및 순위 변화: 총점

(단위: 점)

지역	2021		2022		점수변화	순위변화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서울	62.0	2	64.8	1	2.8	↑ 1
부산	64.1	1	63.7	2	-0.4	↓ 1
대구	54.8	10	60.6	5	5.8	↑ 5
인천	50.6	13	58.9	9	8.3	↑ 4
광주	52.2	11	55.8	14	3.6	↓ 3
대전	60.3	4	59.3	8	-1.0	↓ 4
울산	47.3	16	59.5	7	12.2	↑ 9
세종	60.8	3	62.2	3	1.4	- 0
경기	56.9	6	57.9	11	1.0	↓ 5
강원	48.9	15	50.9	17	2.0	↓ 2
충북	49.4	14	60.8	4	11.4	↑ 10
충남	56.0	7	57.8	12	1.8	↓ 5
전북	50.9	12	54.8	16	3.9	↓ 4
전남	54.9	8	60.5	6	5.6	↑ 2
경북	47.3	17	55.6	15	8.3	↑ 2
경남	58.1	5	58.2	10	0.1	↓ 5
제주	54.8	9	56.2	13	1.4	↓ 4

(단위: 점)



[그림 Ⅲ-10] 2021~2022년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 산출 결과: 총점

나. 영역별 점수 변화

1) 일 영역

2022년 일 영역의 전국 평균 점수는 14.6점으로 2021년 대비 1.4점 증가하였다. 8개 특별/광역시와 9개 도의 2022년 일 영역 평균 점수는 각 14.9점, 14.4점으로 전년 대비 각 1.4점 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Ⅲ-2) 참조).

일 영역 점수의 증가 요인을 살펴보기 위하여 일 영역 지표들의 2021년, 2022년 통계값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지표별 분석 결과 유연근무제도 이용률의 증가 및 총근로시간의 감소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유연근무제도 이용률은 2021년 15.052%에서 2022년 23.519%로 8.467%p 증가했는데, 이는 2022년 일가정양립실태조사 결과 중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사업체의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시간선택제 등을 활용한 평균 인원이 소폭 증가했기 때문이다. 총근로시간은 전년 177.041시간에서 2022년 169.624시간으로 약 7시간 이상 감소하였다. 이는 근로시간 자료원인 고용노동부의 사업체노동력조사(시도별 임금 및 근로시간 부가조사) 기준월인 4월의 월력상 근로일수가 2021년 22일에서 2022년 21일로 1일 감소하고, 2022년 상용근로일수(20.5일)가 전년동월대비 0.9일(4.2%) 감소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표 Ⅲ-4) 참조).

〈표 III-4〉 ‘일’ 영역 지표의 통계값 및 점수 변화(2021~2022년)

‘일’ 영역		2021년(A)	2022년(B)	증감(B-A)
총근로시간(시간)	통계값	177.041	169.624	-7.417
	지표점수	0.060	0.063	0.003
초과근로시간(시간)	통계값	10.206	10.388	0.182
	지표점수	0.010	0.010	0.000
휴가기간(일)	통계값	4.641	5.406	0.765
	지표점수	0.009	0.011	0.002
유연근무제도 도입률(%)	통계값	26.123	24.315	-1.808
	지표점수	0.020	0.018	-0.002
유연근무제도 이용률(%)	통계값	15.052	23.519	8.467
	지표점수	0.034	0.045	0.011
영역점수		13.2	14.6	1.4

2021년에는 대전광역시의 일 영역 점수가 16.11로 가장 높았는데, 2022년은 제주특별자치도가 17.14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유연근무제도 도입률이 40.27%로 기준값인 36.45%를 달성하여 유연근무제도 도입률 지표 점수가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초과근로시간이 적고, 휴가사용일은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대비 2022년 점수 변화가 가장 큰 곳은 울산광역시이고, 다음이 충청북도인데 순위 면에서도 이들 두 곳의 증가 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울산광역시 13계단 상승, 충청북도 11계단 상승). 반면, 대전광역시와 강원도 등 두 곳만 점수가 하락하면서 순위도 크게 낮아졌고, 충청남도는 점수가 전년 대비 0.1점 상승에 그쳐 순위가 8계단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5〉, [그림 III-11] 참고).

〈표 III-5〉 2021~2022년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 점수 및 순위 변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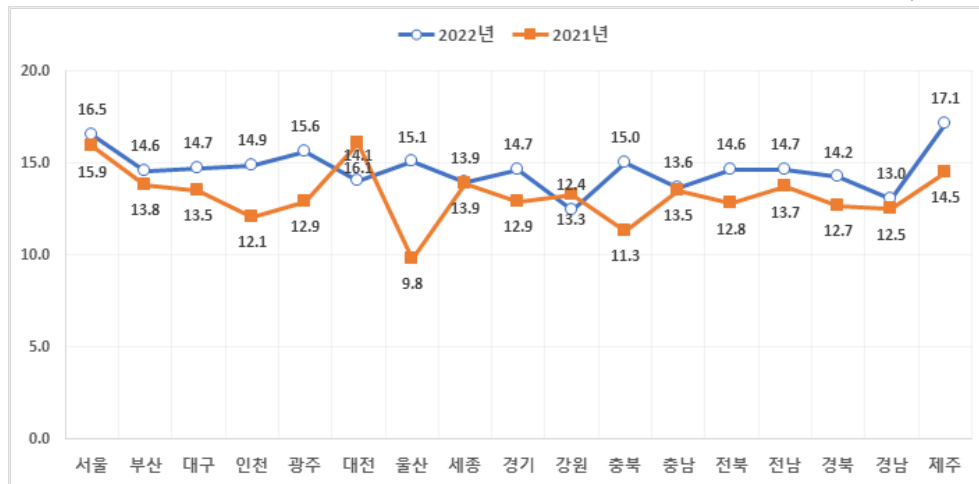
(단위: 점)

지역	2021		2022		점수변화	순위변화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서울	15.9	2	16.5	2	0.6	- 0
부산	13.8	5	14.6	11	0.8	↓ 6
대구	13.5	8	14.7	7	1.2	↑ 1

Ⅲ. 2022년 기준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 산출 결과 39

지역	2021		2022		점수변화	순위변화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인천	12.1	15	14.9	6	2.8	↑ 9
광주	12.9	11	15.6	3	2.7	↑ 8
대전	16.1	1	14.1	13	-2.0	↓ 12
울산	9.8	17	15.1	4	5.3	↑ 13
세종	13.9	4	13.9	14	0.0	↓ 10
경기	12.9	10	14.7	9	1.8	↑ 1
강원	13.3	9	12.4	17	-0.9	↓ 8
충북	11.3	16	15.0	5	3.7	↑ 11
충남	13.5	7	13.6	15	0.1	↓ 8
전북	12.8	12	14.6	10	1.8	↑ 2
전남	13.7	6	14.7	8	1.0	↓ 2
경북	12.7	13	14.2	12	1.5	↑ 1
경남	12.5	14	13.0	16	0.5	↓ 2
제주	14.5	3	17.1	1	2.6	↑ 2

(단위: 점)



[그림 Ⅲ-11] 2021~2022년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 산출 결과: 일 영역

일 영역 지표의 전년 대비 2022년 통계값 변화는 다음과 같다. 출근로시간은 모든 지역에서 감소했다. 울산광역시와 가장 큰 폭인 9.4시간 감소하였고, 대전광역시와 전라북도도 9시간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등 3곳도 8시간 이상 감소하였다. 초과근로시간은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라북도 등 5곳을 제외하고는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휴가기간은 광주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를 제외한 11곳에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6〉 참조).

유연근무제도 도입률은 전년 대비 통계치가 약 2%p 감소했듯이 11개 지자체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대전광역시는 전년 대비 약 26%p 감소하였고, 부산광역시와 강원도도 약 9%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연근무제 이용률은 대다수 지역에서 증가하였는데, 울산광역시가 23.8%p로 가장 크게 높아졌고, 다음이 충청북도, 광주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순이다(〈표 III-6〉 참조).

〈표 III-6〉 2021-2022년 일 영역 지표의 증감 현황

(단위: 시간, 일, %p)

지역	출근로시간	초과근로시간	휴가기간	유연근무제도 도입률	유연근무제도 이용률
서울	-6.8	0.0	0.7	0.97	12.3
부산	-6.7	-0.3	1.1	-9.47	4.6
대구	-8.0	-0.1	0.6	-4.43	8.2
인천	-7.2	-0.1	0.2	5.79	13.2
광주	-7.1	0.4	-0.3	10.09	16.5
대전	-9.2	0.2	0.1	-25.97	-3.9
울산	-9.4	0.0	1.6	14.16	23.8
세종	-8.3	0.9	-0.7	-7.86	2.3
경기	-7.9	-0.2	-0.6	-3.46	8.8
강원	-6.7	0.1	0.3	-9.76	-2.0
충북	-7.0	0.6	0.9	11.99	19.7
충남	-8.2	0.1	-0.2	-7.86	2.3
전북	-9.1	-0.6	3.7	-6.51	5.6
전남	-7.1	0.5	1.0	-5.44	4.4
경북	-6.8	0.4	-0.1	-1.96	7.8
경남	-5.8	1.0	-0.3	-5.62	4.1
제주	-4.8	0.2	5.0	14.61	16.1

2) 생활 영역

생활 영역의 전국 평균 점수는 2021년 16.4점에서 2022년 16.7점으로 소폭(0.3점) 상승하였다. 8개 특별/광역시·도의 경우 2022년 16.6점으로 0.3점 상승하였고, 9개 도의 경우 2022년 16.9점으로 전년 대비 0.4점 상승하였다(〈표 Ⅲ-2〉 참조).

생활 영역 점수의 상승요인을 살펴보기 위하여 각 지표별 점수와 통계값의 변화를 살펴보았는데, 2019년 조사 통계값을 그대로 활용한 ‘남성 가사노동 분담’과 ‘여성 취업에 대한 견해’, ‘일과 가족생활 우선도’를 제외하면 ‘일-여가생활 균형 정도’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개선되었고, ‘가사분담에 대한 견해’ 및 ‘평일 여가시간 충분도’ 등의 값이 소폭 상승하여 생활 영역 지표의 소폭 개선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표 Ⅲ-7〉 참조).

〈표 Ⅲ-7〉 ‘생활’ 영역 지표의 통계값 및 점수 변화(2021~2022년)

‘생활’ 영역		2021년(A)	2022년(B)	증감(B-A)
남성 가사노동 분담 ⁴⁾ (남성 가사노동 시간/전체 가사노동 시간)	통계값	0.229	0.229	0.000
	지표점수	0.023	0.023	0.000
여성 취업에 대한 견해 (‘가정일에 관계없이 직업을 가지는 것이 좋다’의 비율)	통계값	64.376	64.376	0.000
	지표점수	0.023	0.023	0.000
가사분담에 대한 견해 (‘공평하게 분담’의 비율)	통계값	62.059	63.841	1.782
	지표점수	0.031	0.031	0.000
일과 가족생활 우선도 (‘일 우선’의 비율)	통계값	33.441	33.441	0.000
	지표점수	0.018	0.018	0.000
평일 여가시간 (단위: 시간)	통계값	3.929	3.759	-0.170
	지표점수	0.021	0.020	-0.001
평일 여가시간 충분도 (100점 만점)	통계값	4.629	4.694	0.065
	지표점수	0.026	0.026	0.000
일-여가생활 균형 정도 (‘일 집중’ 비율)	통계값	35.818	28.624	-7.194
	지표점수	0.022	0.025	0.003
영역점수		16.4	16.7	0.3

4) 5년 주기로 공표되는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조사값인 ‘남녀 가사노동시간’과 통계청 사회조사 홀

2021년 2위였던 부산이 2022년 18.3점으로 1위로 1계단 상승하였고, 뒤이어 충청 남도와 충청북도가 각 17.7점으로 2순위, 3순위를 기록하였다(〈표 III-8〉 참조).

점수가 하락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제주특별자치도 등에서 순위 하락이 나타났다. 대전은 2022년 15.8점으로 점수도 낮은 데다 전년 대비 0.4점 감소하면서 7계단 하락해 16위를 기록하였다. 점수가 정체되거나 소폭 상승한 데 그친 서울특별시와 광주광역시, 강원도, 전라북도 역시 순위가 소폭 하락하였다(〈표 III-8〉, [그림 III-12]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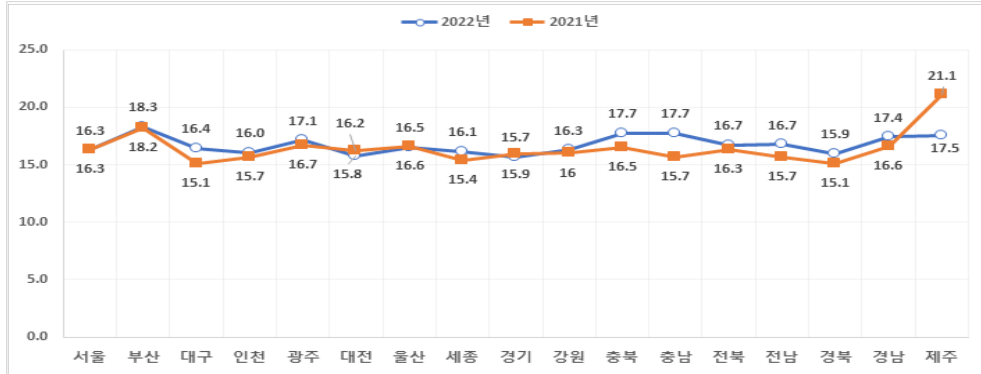
〈표 III-8〉 2021~2022년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 점수 및 순위 변화: 생활

(단위: 점)

지역	2021		2022		점수변화	순위변화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서울	16.3	8	16.3	11	0.0	↓ 3
부산	18.2	2	18.3	1	0.1	↑ 1
대구	15.1	16	16.4	10	1.3	↑ 6
인천	15.7	14	16.0	14	0.3	- 0
광주	16.7	3	17.1	6	0.4	↓ 3
대전	16.2	9	15.8	16	-0.4	↓ 7
울산	16.6	4	16.5	9	-0.1	↓ 5
세종	15.4	15	16.1	13	0.7	↑ 2
경기	15.9	11	15.7	17	-0.2	↓ 6
강원	16.0	10	16.3	12	0.3	↓ 2
충북	16.5	6	17.7	3	1.2	↑ 3
충남	15.7	12	17.7	2	2.0	↑ 10
전북	16.3	7	16.7	8	0.4	↓ 1
전남	15.7	13	16.7	7	1.0	↑ 6
경북	15.1	17	15.9	15	0.8	↑ 2
경남	16.6	5	17.4	5	0.8	- 0
제주	21.1	1	17.5	4	-3.6	↓ 3

수년도 조사값인 '여성 취업에 대한 견해'와 '일과 가족생활 우선도'는 2021년도의 값을 그대로 가져왔다.

(단위: 점)



[그림 III-12] 2021~2022년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 산출 결과: 생활 영역

생활 영역 지표 중 매년 생산되지 않는 자료를 제외한 후 2021년과 2022년 통계값 변화를 살펴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사노동을 부부가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에 동의 정도를 나타내는 ‘가사분담에 대한 견해’ 지표값은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강원도, 충청남도를 제외한 모든 곳에서 증가하였으며, 전라남도가 6.8%p로 가장 많이 증가하였다.

평일 여가시간 증감은 1시간 미만으로 서울특별시, 울산광역시, 충청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등 6곳에서만 증가하였고, 나머지 지역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북도가 전년 대비 가장 큰 폭인 0.6시간 증가하였고, 부산광역시 및 인천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등은 오히려 0.5시간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평일 여가시간 충분도’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전년 대비 14.3%p로 가장 큰 폭 증가하였고, 다음으로 경상남도가 7.1%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등 6곳은 전년 대비 비율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일과 여가 중 ‘일 집중’ 비율을 묻는 ‘일-여가생활 균형 정도’ 지표의 경우, 서울특별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제주특별자치도 등 4곳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비율이 하락하였다. 특히, 전년 대비해 ‘일을 우선시’라는 답변 비율이 큰 폭으로 감소한 곳은 충청남도와 세종특별자치도인데 각 38.2%p, 26.0%p 등이다(표 III-9) 참조).

〈표 III-9〉 2021~2022년 생활 영역 지표의 증감 현황

(단위: %p, 점)

지역	가사분담에 대한 견해	평일 여가시간	평일 여가시간 충분도 (100점 만점)	일-여가생활 균형정도 (‘일 집중’ 비율)
서울	3.5	0.1	2.9	5.4
부산	-2.1	-0.7	5.7	-2.3
대구	3.5	-0.2	4.3	-14.5
인천	4.5	-0.5	2.9	-6.1
광주	0.3	-0.3	-4.3	-7.6
대전	-1.5	-0.3	-7.1	-2.4
울산	1.3	0.4	4.3	4.6
세종	4.1	-0.2	-5.7	-26.0
경기	3.3	-0.3	1.4	4.2
강원	-0.6	-0.3	4.3	-5.1
충북	0.5	0.1	-7.1	-15.6
충남	-4.2	-0.4	-5.7	-38.2
전북	1.6	-0.1	-7.1	-10.7
전남	6.8	0.2	2.9	-8.0
경북	2.5	0.6	2.9	-6.7
경남	1.5	-0.4	7.1	-9.6
제주	5.3	-0.6	14.3	16.3

3) 제도 영역

제도 영역의 전국 평균 점수는 2021년 16.2점에서 2022년 17.1점으로 0.9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8개 특별/광역시와 9개 도 역시 평균 15.6점으로 전년 대비 0.5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2〉 참조).

제도 영역 점수의 증가는 ‘국공립보육시설 설치율’과 ‘일·가정양립제도 인지도’의 통계값이 상대적으로 증가한 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는데 각각 전년 대비 2.59%p, 2.44%p 증가하였다(〈표 III-10〉 참조).

〈표 Ⅲ-10〉 ‘제도’ 영역 지표의 통계값 및 점수 변화(2021~2022년)

‘제도’ 영역		2021(A)	2022(B)	증감(B-A)
여성 육아휴직 사용 사업장 비율(%)	통계값	2.379	2.369	-0.010
	지표점수	0.033	0.033	0.000
남성 육아휴직 사용 사업장 비율(%)	통계값	0.301	0.351	0.050
	지표점수	0.027	0.032	0.005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 사용사업장 비율(%)	통계값	0.532	0.822	0.290
	지표점수	0.025	0.026	0.001
국공립보육시설 설치율(%)	통계값	15.117	17.708	2.591
	지표점수	0.027	0.031	0.004
초등돌봄교실이용률(%)	통계값	11.949	12.292	0.343
	지표점수	0.016	0.016	0.000
일·가정양립제도 인지도 (100점 환산)	통계값	62.852	65.291	2.439
	지표점수	0.016	0.017	0.001
배우자출산후가 이용 (시행기업 비율: %)	통계값	6.746	5.809	-0.937
	지표점수	0.017	0.016	-0.001
영역점수		16.2	17.1	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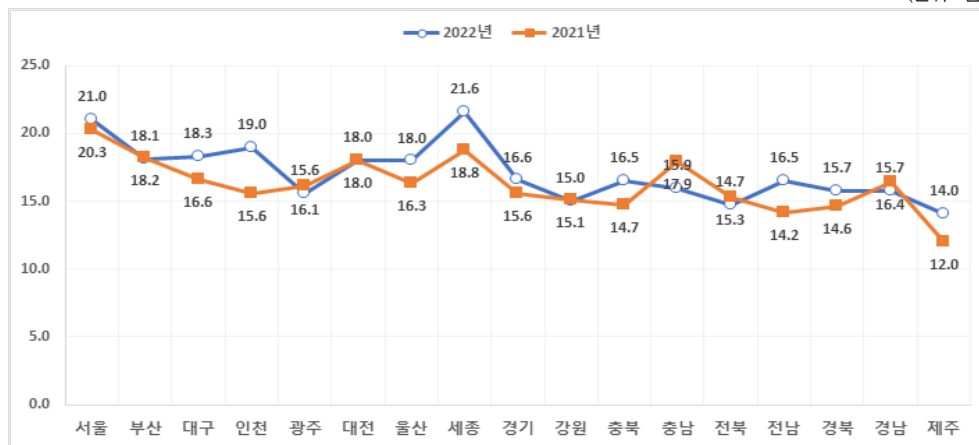
세종특별자치시는 21.6점으로 전년 대비 2.8점 상승하면서 1위로 올라섰다. 전년 1위였던 서울특별시는 2022년 21.0점으로 세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 폭이 높지 않아 2위로 1계단 하락하였다. 8곳이 2021년보다 순위가 오른 가운데 특히 인천광역시 가 7계단, 전라남도가 6계단 등으로 순위 상승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표 Ⅲ-11〉, [그림 Ⅲ-13] 참고).

〈표 Ⅲ-11〉 2021~2022년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 점수 및 순위 변화: 제도

(단위: 점)

지역	2021		2022		점수변화	순위변화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서울	20.3	1	21.0	2	0.7	↓ 1
부산	18.2	3	18.1	5	-0.1	↓ 2
대구	16.6	6	18.3	4	1.7	↑ 2
인천	15.6	10	19.0	3	3.4	↑ 7
광주	16.1	9	15.6	14	-0.5	↓ 5
대전	18.0	4	18.0	6	0.0	↓ 2
울산	16.3	8	18.0	7	1.7	↑ 1
세종	18.8	2	21.6	1	2.8	↑ 1
경기	15.6	11	16.6	8	1.0	↑ 3
강원	15.1	13	15.0	15	-0.1	↓ 2
충북	14.7	14	16.5	9	1.8	↑ 5
충남	17.9	5	15.9	11	-2.0	↓ 6
전북	15.3	12	14.7	16	-0.6	↓ 4
전남	14.2	16	16.5	10	2.3	↑ 6
경북	14.6	15	15.7	12	1.1	↑ 3
경남	16.4	7	15.7	13	-0.7	↓ 6
제주	12.0	17	14.0	17	2.0	- 0

(단위: 점)



[그림 Ⅲ-13] 2021~2022년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 산출 결과: 제도 영역

제도 영역 세부지표의 전년 대비 2022년 변화 상황은 다음과 같다. ‘국공립보육시설 설치율’만 모든 시·도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 사업장 비율’, ‘초등돌봄교실 이용률’, ‘일·가정 양립 제도 인지도’ 등 3개 지표는 전체 중 4곳만 감소세를 보였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점수가 높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전년 대비 점수가 감소한 ‘여성 육아휴직 사용 사업장 비율’과 ‘배우자출산휴가 이용’의 경우, 전년에 비해 5~6곳 정도만 비율이 증가하였고, 대다수는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년 대비 감소 폭이 큰 ‘배우자출산휴가 이용’은 시행기업 비율을 측정하는데 충청남도과 세종특별자치시에서 6.55%p 감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시행기업 비율이 낮아진 양상을 보였다(〈표 III-12〉 참조).

〈표 III-12〉 2021~2022년 제도 영역 지표의 증감 현황

(단위: %p, 점)

지역	여성 육아휴직 사용 사업장 비율 (사용/전체)	남성 육아휴직 사용 사업장 비율 (사용/전체)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제도 사용 사업장 비율 (사용/전체)	국공립보육 시설 설치율 (%)	초등돌봄 교실 이용률 (%)	일·가정 양립 제도 인지도 (100점 만점)	배우자출산 휴가 이용 (시행기업 비율(%))
서울	-0.12	0.10	-0.04	2.95	0.74	3.61	-1.29
부산	-0.23	0.00	0.28	2.69	0.11	0.04	-2.40
대구	-0.14	0.07	0.34	3.40	0.55	-1.49	1.81
인천	0.36	0.20	0.35	2.95	0.55	5.45	0.69
광주	-0.18	-0.06	0.22	3.31	0.08	0.44	-2.07
대전	-0.11	0.00	0.16	2.78	1.19	-3.38	-2.10
울산	0.20	0.05	0.34	1.85	-0.07	-1.17	3.96
세종	0.72	0.37	0.64	7.57	0.50	3.49	-6.55
경기	0.12	0.08	0.26	2.01	0.29	1.94	-1.06
강원	-0.17	-0.06	0.19	2.11	0.67	13.41	-1.19
충북	0.20	0.03	0.54	1.68	-0.09	-1.91	2.90
충남	-0.15	-0.16	-0.01	2.09	-0.03	3.49	-6.55
전북	-0.19	0.07	-0.04	1.81	-0.39	1.28	-3.17
전남	-0.09	0.13	0.67	1.73	0.09	2.71	-2.88
경북	-0.03	-0.05	1.13	2.04	0.28	4.48	2.94
경남	-0.08	0.11	-0.96	1.94	1.07	6.42	-0.10
제주	-0.27	-0.02	0.83	1.15	0.27	2.65	1.17

4) 지자체 관심도 영역

지자체 관심도 영역의 2022년 전국 평균 점수는 10.2점으로 전년 8.8점 대비 1.4점 높아졌다. 8개 특별/광역시의 지자체 관심도 영역 평균 점수는 2021년 9.3점에서 2022년 10.4점으로 1.1점 높아졌고, 9개 도의 동 영역 평균 점수는 2021년 8.4점에서 2022년 10.1점으로 1.7점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2) 참고).

지자체 관심도 영역의 각 지표별 점수 및 통계값 변화를 살펴보면, ‘일·생활 균형 관련 교육·컨설팅’에서 가장 큰 폭인 3.539%p 상승하였고, ‘지자체의 일·생활 균형 제도 홍보’도 1.214점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일·생활 균형 조례 유무’의 경우, 대부분 지역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있고 울산광역시와 충청북도, 경상북도 등이 관련 조례를 정비하면서 점수가 소폭 상승하였다. ‘담당조직 유무’도 소폭이지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지역사회 가족문화 관련 시설 현황’은 모든 지역에서 통계값이 감소하였다(표 III-13) 참조).

〈표 III-13〉 ‘지자체 관심도’ 영역 지표의 통계값 및 점수 변화(2021~2022년)

지자체 ‘관심도’ 영역		2021년(A)	2022년(B)	증감(B-A)
지자체의 일·생활 균형 제도 홍보 (100점 만점)	통계값	4.183	5.397	1.214
	지표점수	0.018	0.023	0.005
일·생활 균형 조례 유무 (1점 만점)	통계값	0.750	0.853	0.103
	지표점수	0.037	0.042	0.005
담당조직 유무(1.1점 만점)	통계값	0.454	0.456	0.002
	지표점수	0.023	0.023	0.000
지역사회 가족문화 관련 시설 현황 (인구 천 명당 제공 수)	통계값	11.126	10.544	-0.582
	지표점수	0.008	0.008	0.000
일·생활 균형 관련 교육·컨설팅 (경험 사업체 비율)	통계값	1.391	4.930	3.539
	지표점수	0.002	0.006	0.004
영역 점수		8.8	10.2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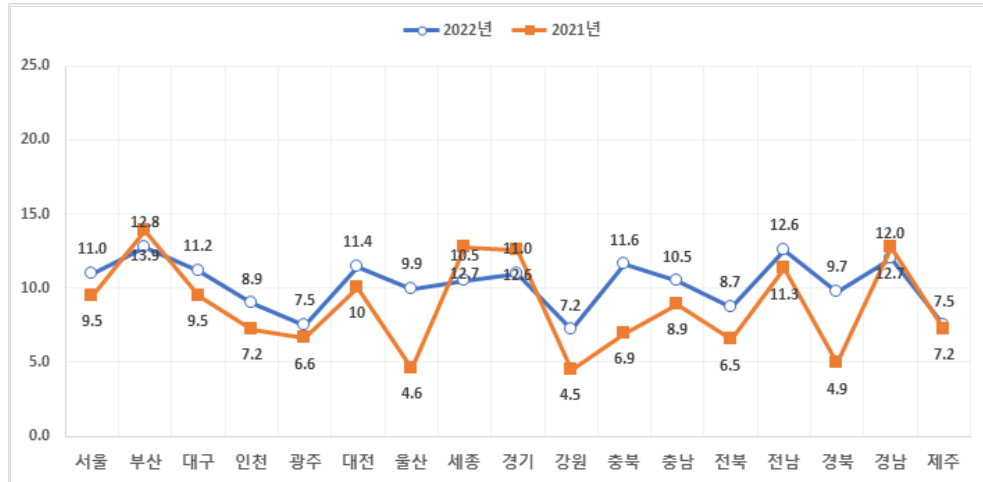
부산광역시는 지자체 관심도 영역에서 2022년 12.8점으로 2021년에 이어 연속 1위를 기록하였다. 다음으로 전라남도 12.6점(2위), 경상남도 12.0점(3위), 충청북도 11.6점(4위) 순이다. 전년 대비 순위가 상승한 곳은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충청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등인데 충청북도는 전년 대비 4.7점 높아져 8계단 올라섰고, 울산광역시도 전년 대비 5.3점이 높아지면서 순위도 5계단 올라섰다. 전년 대비 점수 변화를 살펴보면 부산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경상남도 등 4곳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점수가 상승하였다. 순위가 하락한 곳은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충청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등인데 가장 크게 하락한 지역은 7계단 하락한 세종특별자치시이다(〈표 Ⅲ-14〉, [그림 Ⅲ-14] 참고).

〈표 Ⅲ-14〉 2021~2022년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 점수 및 순위 변화: 지자체 관심도

지역	2021		2022		점수변화	순위변화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서울	9.5	8	11.0	8	1.5	- 0
부산	13.9	1	12.8	1	-1.1	- 0
대구	9.5	7	11.2	6	1.7	↑ 1
인천	7.2	10	8.9	13	1.7	↓ 3
광주	6.6	13	7.5	15	0.9	↓ 2
대전	10.0	6	11.4	5	1.4	↑ 1
울산	4.6	16	9.9	11	5.3	↑ 5
세종	12.7	2	10.5	9	-2.2	↓ 7
경기	12.6	4	11.0	7	-1.6	↓ 3
강원	4.5	17	7.2	17	2.7	- 0
충북	6.9	12	11.6	4	4.7	↑ 8
충남	8.9	9	10.5	10	1.6	↓ 1
전북	6.5	14	8.7	14	2.2	- 0
전남	11.3	5	12.6	2	1.3	↑ 3
경북	4.9	15	9.7	12	4.8	↑ 3
경남	12.7	3	12.0	3	-0.7	- 0
제주	7.2	11	7.5	16	0.3	↓ 5

(단위: 점)



[그림 III-14] 2021~2022년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 산출 결과: 지자체 관심도 영역

지자체 관심도 영역의 2021년 대비 2022년 통계값 변화를 지표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자체의 일·생활 균형 제도 확산 노력’은 부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등을 제외한 12곳에서 점수가 향상되었다. 가장 증가 폭이 큰 곳이 강원도(4.9점)이고, 감소 폭이 큰 곳은 부산광역시(2.9점)이다(〈표 III-15〉참조).

‘일·생활 균형 조례 유무’ 지표의 경우, 2022년 울산광역시, 충청북도, 경상북도 등에서 점수가 증가하였다. ‘담당조직 유무’는 조직 개편이 빈번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울산광역시, 충청남도, 전라북도의 점수가 0.5점 증가하였고, 세종특별자치시와 경기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등은 점수가 오히려 감소하였다.

‘지역사회 가족문화 관련시설 현황’ 지표는 모든 지자체에서 전년 대비 0.1~1.1점 감소하였는데, 세종특별자치시가 1.7점으로 가장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일·생활 균형 관련 교육·컨설팅’ 지표는 관련 교육과 컨설팅을 경험한 사업체의 비율을 측정하는데 광주광역시만 전년 대비 0.3%p 감소하였고, 그 외 모든 지자체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 폭이 가장 큰 곳은 제주특별자치도로 12.5%p였으며 다음이 경상북도 8.6%p, 강원도 5.5%p 수준이다.

〈표 Ⅲ-15〉 2021~2022년 지자체 관심도 영역 지표의 증감 현황

(단위: %p, 개, 점)

지역	지자체의 일·생활 균형 제도 확산 노력	일·생활 균형 조례 유무 (1점 만점)	담당조직 유무 (1.1점 만점)	지역사회 가족문화 관련 시설 현황 (인구 천 명당 제공 수)	일·생활 균형 관련 교육·컨설팅 (경험 사업체 비율)
서울	2.8	0.0	0.0	-0.1	2.2
부산	-2.9	0.0	0.0	-0.2	0.5
대구	2.4	0.0	0.0	-0.2	4.4
인천	3.1	0.0	0.0	-0.3	3.5
광주	2.3	0.0	0.0	-0.3	-0.3
대전	2.3	0.0	0.0	-0.3	4.1
울산	-0.4	0.5	0.5	-0.7	4.1
세종	-2.7	0.0	-0.2	-1.7	1.4
경기	1.3	0.0	-0.5	-0.5	3.7
강원	4.9	0.0	0.0	-0.4	5.5
충북	2.1	0.8	0.0	-1.1	1.3
충남	-2.7	0.0	0.5	-0.8	1.4
전북	-1.0	0.0	0.5	-0.9	0.6
전남	2.2	0.0	0.0	-0.5	3.4
경북	3.3	0.5	0.0	-0.8	8.6
경남	0.5	0.0	-0.2	-1.0	3.0
제주	3.0	0.0	-0.5	-0.2	12.5

IV

결론

1. 주요 연구결과 및 시사점	55
2. 정책제언	56

1. 주요 연구결과 및 시사점

2022년 기준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 산출 결과 전국 평균은 58.7점으로 2021년 기준 54.7점보다 4.0점이 증가하여 우리 사회의 일·생활 균형 수준이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다. 영역별로 보면 일과 지자체 관심도 영역 점수가 각각 1.4점, 제도와 생활 영역 점수는 각각 0.9점과 0.3점 등 모든 영역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 영역에 속하는 지표들의 변화를 살펴보면, 총근로시간, 휴가기간, 유연근무제도 이용률 지표 통계값의 전반적인 개선으로 인해 일 영역 점수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 영역 지표들의 변화를 살펴보면, ‘가사분담에 대한 견해’, ‘평일 여가시간충분도’, ‘일·여가 생활 균형 정도’ 통계값의 개선이 반영되어 생활 영역 점수가 전체적으로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제도 영역 지표들의 변화를 살펴보면 ‘남성 육아휴직 사용 사업장 비율’, ‘육아기근로 시간단축제도 사용 사업장 비율’, ‘국공립보육시설 설치율’, ‘초등돌봄교실이용률’, ‘일·가정 양립제도 인지도’ 등의 통계값이 이전년도에 비해 개선됨에 따라 제도 영역의 점수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관심도 영역 구성 지표의 변화를 살펴보면, ‘지자체의 일·생활 균형 제도 홍보’, ‘일·생활 균형 조례 유무’, ‘담당조직 유무’, ‘일·생활 균형 관련 교육·컨설팅’ 등의 통계값이 이전 년도 대비 증가하여 지자체 관심도 영역의 점수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기준 일·생활 균형 지수를 통해 일·생활 균형 관련 사회적 인식과 지방자치단체의 일·생활 균형 관련 추진 근거가 상당히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일·생활 균형 지수의 최초 산출 당시 전무하였던 ‘일·생활 균형 조례’는 2022년 기준 17개 시도 가운데 12개 시도에서 제정·시행됨에 따라 향후 일·생활 균형 문화의 지역적 편차를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시도 수준에서 마련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일·생활 균형 문화가 지역별로 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2. 정책제언

가. 전년 대비 감소 지표 개선 사업의 지속 추진

2022년 기준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 산출 결과, 일 영역의 초과근로시간, 유연근무제도 도입률, 제도 영역의 여성 육아휴직 사용 사업장 비율, 배우자 출산휴가 시행 기업 비율의 통계값이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 지표의 개선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나.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정도의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 반영 방안 검토

양질의 가사서비스 활성화를 통한 맞벌이 가정 등의 일·가정 양립과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2022년 6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직접고용 형태의 가사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노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정도를 2023년 기준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 산출 시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기존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 산출 방식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지자체의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활성화 노력 정도를 가점 영역으로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민정·김종숙·김난주·이선행·권소영, 『2018년 기준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 산출』, 고용노동부, 2019.
- 고용노동부, 『2021년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2022.
- 고용노동부, 『시도별 임금 및 근로시간 보고서』, 각 연도.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평생교육통계자료집』, 각 연도.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 각 연도.
- 문화체육관광부, 『등록공연장 현황』, 각 연도.
- 문화체육관광부,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각 연도.
- 문화체육관광부, 『전국공공체육시설 현황』, 각 연도.
-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각 연도.
-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시설 현황』, 각 연도.
- 여성가족부, 『청소년 수련시설 현황』, 각 연도.
- 영화진흥위원회, 『전국 극장 현황』, 각 연도.
- 전기택·홍승아·이승현·이선행, 『지자체 일·생활 균형 관련 실태진단 및 역할 강화방안 연구』, 고용노동부, 2018.
- 전기택·김종숙·김난주·이선행·권소영, 『2019년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 산출』, 고용노동부, 2019.
-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각 연도.
- 통계청, 『사회조사』, 각 연도.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시도편)』, 2017.
- 학교알리미(초·중등 교육정보 공시서비스).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 및 운영·지원 현황, 각 연도. (<https://www.schoolinfo.go.kr/Main.do>, 접속일 2023.10.30.)
-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계획현황』, 각 연도.
- 행정안전부, 『주민자치센터 현황 및 운영현황』, 각 연도.
- 행정안전부, 『자원봉사센터 현황』, 각 연도.
- 행정안전부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자치단체별 자치법규, 각 연도. (<https://www.elis.go.kr/locgovallr/locgovClAlrList>, 접속일 2023.11.25.)
- 홍승아·전기택·박수범·동제연·김수진,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표개발 및 조사』, 고용노동부, 2017.

부 록

[부록] 영역별 점수 산출 과정

[부표 1] 일 영역(1)

지역	총근로시간					초과근로시간					휴가기간				
	통계값	기준값	도달률	가중치	지표 점수	통계값	기준값	도달률	가중치	지표 점수	통계값	기준값	도달률	가중치	지표 점수
서울	166.1	150.0	0.903	0.071	0.064	5.9	2.05	0.347	0.044	0.015	6.0	15.00	0.40	0.030	0.012
부산	168.8	150.0	0.889	0.071	0.063	7.0	2.05	0.293	0.044	0.013	4.5	15.00	0.30	0.030	0.009
대구	169.3	150.0	0.886	0.071	0.063	10.0	2.05	0.205	0.044	0.009	4.2	15.00	0.28	0.030	0.009
인천	171.5	150.0	0.875	0.071	0.062	9.8	2.05	0.209	0.044	0.009	4.8	15.00	0.32	0.030	0.010
광주	166.1	150.0	0.903	0.071	0.064	8.0	2.05	0.256	0.044	0.011	4.3	15.00	0.29	0.030	0.009
대전	164.0	150.0	0.915	0.071	0.065	5.7	2.05	0.359	0.044	0.016	4.4	15.00	0.29	0.030	0.009
울산	170.2	150.0	0.881	0.071	0.062	14.8	2.05	0.138	0.044	0.006	5.7	15.00	0.38	0.030	0.012
세종	170.8	150.0	0.878	0.071	0.062	14.0	2.05	0.146	0.044	0.006	4.9	15.00	0.33	0.030	0.010
경기	171.4	150.0	0.875	0.071	0.062	9.2	2.05	0.223	0.044	0.010	4.6	15.00	0.31	0.030	0.009
강원	166.9	150.0	0.899	0.071	0.064	8.8	2.05	0.233	0.044	0.010	6.3	15.00	0.42	0.030	0.013
충북	172.4	150.0	0.870	0.071	0.062	13.7	2.05	0.150	0.044	0.007	5.3	15.00	0.35	0.030	0.011
충남	173.0	150.0	0.867	0.071	0.061	14.5	2.05	0.141	0.044	0.006	4.0	15.00	0.27	0.030	0.008
전북	169.0	150.0	0.888	0.071	0.063	11.1	2.05	0.185	0.044	0.008	9.6	15.00	0.64	0.030	0.019
전남	169.4	150.0	0.885	0.071	0.063	8.8	2.05	0.233	0.044	0.010	6.2	15.00	0.41	0.030	0.013
경북	172.1	150.0	0.872	0.071	0.062	14.9	2.05	0.138	0.044	0.006	4.4	15.00	0.29	0.030	0.009
경남	174.6	150.0	0.859	0.071	0.061	14.8	2.05	0.138	0.044	0.006	4.7	15.00	0.31	0.030	0.010
제주	168.0	150.0	0.893	0.071	0.063	5.6	2.05	0.366	0.044	0.016	8.0	15.00	0.53	0.030	0.016

[부표 2] 일 영역(2)

지역	유연근무제도 도입률					유연근무제도 이용률					영역 점수
	통계값	기준값	도달률	가중치	지표 점수	통계값	기준값	도달률	가중치	지표 점수	
서울	34.01	36.45	0.93	0.028	0.026	33.24	21.60	1.00	0.048	0.048	16.54
부산	20.55	36.45	0.56	0.028	0.016	20.31	21.60	0.94	0.048	0.045	14.58
대구	25.07	36.45	0.69	0.028	0.019	24.55	21.60	1.00	0.048	0.048	14.74
인천	26.31	36.45	0.72	0.028	0.020	25.43	21.60	1.00	0.048	0.048	14.90
광주	31.87	36.45	0.87	0.028	0.024	29.79	21.60	1.00	0.048	0.048	15.63
대전	17.16	36.45	0.47	0.028	0.013	17.16	21.60	0.79	0.048	0.038	14.08
울산	29.63	36.45	0.81	0.028	0.023	29.40	21.60	1.00	0.048	0.048	15.07
세종	20.34	36.45	0.56	0.028	0.016	20.34	21.60	0.94	0.048	0.045	13.93
경기	22.96	36.45	0.63	0.028	0.018	21.98	21.60	1.00	0.048	0.048	14.67
강원	12.67	36.45	0.35	0.028	0.010	12.63	21.60	0.58	0.048	0.028	12.44
충북	30.62	36.45	0.84	0.028	0.023	30.31	21.60	1.00	0.048	0.048	15.03
충남	20.34	36.45	0.56	0.028	0.016	20.34	21.60	0.94	0.048	0.045	13.65
전북	19.70	36.45	0.54	0.028	0.015	18.40	21.60	0.85	0.048	0.041	14.64
전남	20.52	36.45	0.56	0.028	0.016	20.52	21.60	0.95	0.048	0.046	14.68
경북	23.05	36.45	0.63	0.028	0.018	22.85	21.60	1.00	0.048	0.048	14.23
경남	18.28	36.45	0.50	0.028	0.014	17.98	21.60	0.83	0.048	0.040	13.04
제주	40.27	36.45	1.00	0.028	0.028	34.62	21.60	1.00	0.048	0.048	17.14

[부표 3] 생활 영역(1)

지역	남성 가사노동시간 비중(가사노동시간분담률)							여성취업에 대한 견해					가사분담에 대한 견해				
	여성가사 노동시간	남성가사 노동시간	통계값	기준값	도달률	가중치	지표 점수	통계값	기준값	도달률	가중치	지표 점수	통계값	기준값	도달률	가중치	지표 점수
서울	172	52	0.23	0.50	0.46	0.050	0.02	66.80	81.21	0.82	0.030	0.024	69.20	74.07	0.93	0.036	0.034
부산	168	54	0.24	0.50	0.49	0.050	0.02	65.70	81.21	0.81	0.030	0.024	60.60	74.07	0.82	0.036	0.030
대구	171	49	0.22	0.50	0.45	0.050	0.02	62.90	81.21	0.77	0.030	0.023	58.20	74.07	0.79	0.036	0.029
인천	179	48	0.21	0.50	0.42	0.050	0.02	67.40	81.21	0.83	0.030	0.025	67.40	74.07	0.91	0.036	0.033
광주	166	45	0.21	0.50	0.43	0.050	0.02	59.80	81.21	0.74	0.030	0.022	69.00	74.07	0.93	0.036	0.034
대전	182	55	0.23	0.50	0.46	0.050	0.02	63.10	81.21	0.78	0.030	0.023	62.60	74.07	0.85	0.036	0.031
울산	192	45	0.19	0.50	0.38	0.050	0.02	62.00	81.21	0.76	0.030	0.023	61.00	74.07	0.82	0.036	0.030
세종	202	60	0.23	0.50	0.46	0.050	0.02	63.50	81.21	0.78	0.030	0.023	68.50	74.07	0.92	0.036	0.034
경기	185	53	0.22	0.50	0.45	0.050	0.02	61.00	81.21	0.75	0.030	0.022	66.70	74.07	0.90	0.036	0.033
강원	176	55	0.24	0.50	0.48	0.050	0.02	64.90	81.21	0.80	0.030	0.024	65.70	74.07	0.89	0.036	0.032
충북	172	50	0.23	0.50	0.45	0.050	0.02	62.40	81.21	0.77	0.030	0.023	62.80	74.07	0.85	0.036	0.031
충남	175	53	0.23	0.50	0.46	0.050	0.02	63.60	81.21	0.78	0.030	0.023	59.40	74.07	0.80	0.036	0.029
전북	176	59	0.25	0.50	0.50	0.050	0.03	68.60	81.21	0.84	0.030	0.025	62.40	74.07	0.84	0.036	0.031
전남	172	52	0.23	0.50	0.46	0.050	0.02	67.70	81.21	0.83	0.030	0.025	63.80	74.07	0.86	0.036	0.031
경북	182	50	0.22	0.50	0.43	0.050	0.02	57.90	81.21	0.71	0.030	0.021	57.20	74.07	0.77	0.036	0.028
경남	190	53	0.22	0.50	0.44	0.050	0.02	61.70	81.21	0.76	0.030	0.022	60.80	74.07	0.82	0.036	0.030
제주	157	62	0.28	0.50	0.57	0.050	0.03	75.40	81.21	0.93	0.030	0.027	70.00	74.07	0.94	0.036	0.034

[부표 4] 생활 영역(2)

지역	일과 가족생활 우선도					여가시간(평일)				
	통계값	기준값	도달률	가중치	지표점수	통계값	기준값	도달률	가중치	지표점수
서울	35.5	12.52	0.35	0.048	0.017	3.60	5.69	0.63	0.030	0.019
부산	38.7	12.52	0.32	0.048	0.016	4.70	5.69	0.83	0.030	0.025
대구	38.1	12.52	0.33	0.048	0.016	3.80	5.69	0.67	0.030	0.020
인천	33.4	12.52	0.37	0.048	0.018	3.40	5.69	0.60	0.030	0.018
광주	34.7	12.52	0.36	0.048	0.017	3.60	5.69	0.63	0.030	0.019
대전	33.3	12.52	0.38	0.048	0.018	3.80	5.69	0.67	0.030	0.020
울산	35.5	12.52	0.35	0.048	0.017	4.40	5.69	0.77	0.030	0.023
세종	31.2	12.52	0.40	0.048	0.019	3.50	5.69	0.62	0.030	0.018
경기	31.7	12.52	0.39	0.048	0.019	3.10	5.69	0.55	0.030	0.016
강원	29.3	12.52	0.43	0.048	0.021	3.20	5.69	0.56	0.030	0.017
충북	31.4	12.52	0.40	0.048	0.019	4.20	5.69	0.74	0.030	0.022
충남	30.3	12.52	0.41	0.048	0.020	3.30	5.69	0.58	0.030	0.017
전북	30.1	12.52	0.42	0.048	0.020	3.30	5.69	0.58	0.030	0.017
전남	34.6	12.52	0.36	0.048	0.017	3.90	5.69	0.69	0.030	0.021
경북	31.3	12.52	0.40	0.048	0.019	4.30	5.69	0.76	0.030	0.023
경남	34.2	12.52	0.37	0.048	0.018	4.90	5.69	0.86	0.030	0.026
제주	35.2	12.52	0.36	0.048	0.017	2.90	5.69	0.51	0.030	0.015

[부표 5] 생활 영역(3)

지역	여가시간 충분도						일-여가생활균형정도					영역점수
	통계값	환산값 (100점)	기준값	도달률	가중치	지표점수	통계값	기준값	도달률	가중치	지표점수	
서울	4.7	67.14	100.00	0.67	0.039	0.026	36.30	10.00	0.28	0.068	0.019	16.28
부산	5.2	74.29	100.00	0.74	0.039	0.029	19.30	10.00	0.52	0.068	0.035	18.29
대구	4.7	67.14	100.00	0.67	0.039	0.026	24.50	10.00	0.41	0.068	0.028	16.39
인천	4.6	65.71	100.00	0.66	0.039	0.026	34.60	10.00	0.29	0.068	0.020	16.04
광주	4.8	68.57	100.00	0.69	0.039	0.027	22.00	10.00	0.45	0.068	0.031	17.13
대전	4.4	62.86	100.00	0.63	0.039	0.025	38.10	10.00	0.26	0.068	0.018	15.78
울산	5.0	71.43	100.00	0.71	0.039	0.028	26.80	10.00	0.37	0.068	0.025	16.53
세종	4.3	61.43	100.00	0.61	0.039	0.024	34.60	10.00	0.29	0.068	0.020	16.14
경기	4.5	64.29	100.00	0.64	0.039	0.025	35.70	10.00	0.28	0.068	0.019	15.71
강원	4.4	62.86	100.00	0.63	0.039	0.025	32.90	10.00	0.30	0.068	0.021	16.27
충북	4.6	65.71	100.00	0.66	0.039	0.026	20.10	10.00	0.50	0.068	0.034	17.72
충남	4.6	65.71	100.00	0.66	0.039	0.026	17.70	10.00	0.56	0.068	0.038	17.72
전북	4.3	61.43	100.00	0.61	0.039	0.024	27.40	10.00	0.36	0.068	0.025	16.73
전남	4.9	70.00	100.00	0.70	0.039	0.028	30.10	10.00	0.33	0.068	0.022	16.75
경북	4.8	68.57	100.00	0.69	0.039	0.027	35.00	10.00	0.29	0.068	0.019	15.92
경남	5.4	77.14	100.00	0.77	0.039	0.030	26.20	10.00	0.38	0.068	0.026	17.40
제주	4.6	65.71	100.00	0.66	0.039	0.026	25.30	10.00	0.40	0.068	0.027	17.55

[부표 6] 제도 영역(1)

지역	여성 육아휴직 사용 사업장 비율					남성 육아휴직 사용 사업장 비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 사업장 비율				
	통계값	기준값	도달률	가중치	지표 점수	통계값	기준값	도달률	가중치	지표 점수	통계값	기준값	도달률	가중치	지표 점수
서울	2.66	2.60	1.00	0.040	0.040	0.53	0.59	0.89	0.054	0.048	0.40	0.37	1.00	0.028	0.028
부산	2.80	2.60	1.00	0.040	0.040	0.42	0.59	0.71	0.054	0.038	0.93	0.37	1.00	0.028	0.028
대구	2.49	2.60	0.95	0.040	0.038	0.32	0.59	0.54	0.054	0.029	0.80	0.37	1.00	0.028	0.028
인천	2.57	2.60	0.99	0.040	0.039	0.49	0.59	0.83	0.054	0.045	0.85	0.37	1.00	0.028	0.028
광주	3.28	2.60	1.00	0.040	0.040	0.33	0.59	0.55	0.054	0.030	1.19	0.37	1.00	0.028	0.028
대전	3.71	2.60	1.00	0.040	0.040	0.45	0.59	0.76	0.054	0.041	1.23	0.37	1.00	0.028	0.028
울산	2.97	2.60	1.00	0.040	0.040	0.35	0.59	0.59	0.054	0.032	1.19	0.37	1.00	0.028	0.028
세종	3.27	2.60	1.00	0.040	0.040	0.50	0.59	0.84	0.054	0.045	1.22	0.37	1.00	0.028	0.028
경기	2.36	2.60	0.91	0.040	0.036	0.37	0.59	0.62	0.054	0.033	0.80	0.37	1.00	0.028	0.028
강원	1.42	2.60	0.54	0.040	0.022	0.17	0.59	0.28	0.054	0.015	0.52	0.37	1.00	0.028	0.028
충북	1.95	2.60	0.75	0.040	0.030	0.28	0.59	0.48	0.054	0.026	0.87	0.37	1.00	0.028	0.028
충남	1.80	2.60	0.69	0.040	0.027	0.32	0.59	0.53	0.054	0.029	0.36	0.37	1.00	0.028	0.028
전북	1.78	2.60	0.68	0.040	0.027	0.25	0.59	0.42	0.054	0.023	0.31	0.37	0.85	0.028	0.024
전남	1.31	2.60	0.50	0.040	0.020	0.28	0.59	0.48	0.054	0.026	0.83	0.37	1.00	0.028	0.028
경북	1.70	2.60	0.65	0.040	0.026	0.24	0.59	0.40	0.054	0.022	1.45	0.37	1.00	0.028	0.028
경남	2.95	2.60	1.00	0.040	0.040	0.40	0.59	0.68	0.054	0.037	0.06	0.37	0.16	0.028	0.004
제주	1.26	2.60	0.49	0.040	0.019	0.27	0.59	0.46	0.054	0.025	0.94	0.37	1.00	0.028	0.028

[부표 기 제도 영역(2)]

지역	국공립보육시설 설치비율					초등돌봄교실 이용률				
	통계값	기준값	도달률	가중치	지표점수	통계값	기준값	도달률	가중치	지표점수
서울	38.82	25.61	1.00	0.048	0.048	12.04	24.91	0.48	0.033	0.016
부산	19.72	25.61	0.77	0.048	0.037	8.95	24.91	0.36	0.033	0.012
대구	21.60	25.61	0.84	0.048	0.041	9.98	24.91	0.40	0.033	0.013
인천	17.15	25.61	0.67	0.048	0.032	11.75	24.91	0.47	0.033	0.016
광주	14.89	25.61	0.58	0.048	0.028	7.20	24.91	0.29	0.033	0.010
대전	10.86	25.61	0.42	0.048	0.020	12.85	24.91	0.52	0.033	0.017
울산	14.63	25.61	0.57	0.048	0.028	9.22	24.91	0.37	0.033	0.012
세종	37.31	25.61	1.00	0.048	0.048	14.57	24.91	0.58	0.033	0.019
경기	14.05	25.61	0.55	0.048	0.026	8.37	24.91	0.34	0.033	0.011
강원	16.89	25.61	0.66	0.048	0.032	17.76	24.91	0.71	0.033	0.024
충북	13.68	25.61	0.53	0.048	0.026	10.84	24.91	0.44	0.033	0.014
충남	11.81	25.61	0.46	0.048	0.022	12.93	24.91	0.52	0.033	0.017
전북	12.30	25.61	0.48	0.048	0.023	16.15	24.91	0.65	0.033	0.022
전남	19.52	25.61	0.76	0.048	0.037	16.35	24.91	0.66	0.033	0.022
경북	13.60	25.61	0.53	0.048	0.026	14.47	24.91	0.58	0.033	0.019
경남	14.46	25.61	0.56	0.048	0.027	12.28	24.91	0.49	0.033	0.016
제주	9.76	25.61	0.38	0.048	0.018	13.23	24.91	0.53	0.033	0.018

[부표 8] 제도 영역(3)

지역	일·가정양립제도 인지도						배우자출산휴가 사용 사업장 비율					영역점수
	통계값	환산값 (100점)	기준값	도달률	가중치	지표점수	통계값	기준값	도달률	가중치	지표점수	
서울	3.31	66.30	81.64	0.81	0.021	0.017	4.83	9.352	0.52	0.025	0.013	21.0
부산	3.31	66.19	81.64	0.81	0.021	0.017	3.28	9.352	0.35	0.025	0.009	18.1
대구	3.15	62.98	81.64	0.77	0.021	0.016	6.51	9.352	0.70	0.025	0.018	18.3
인천	3.35	66.94	81.64	0.82	0.021	0.017	4.77	9.352	0.51	0.025	0.013	19.0
광주	2.95	59.07	81.64	0.72	0.021	0.015	1.94	9.352	0.21	0.025	0.005	15.6
대전	3.18	63.56	81.64	0.78	0.021	0.017	6.37	9.352	0.68	0.025	0.017	18.0
울산	2.89	57.73	81.64	0.71	0.021	0.015	10.05	9.352	1.00	0.025	0.025	18.0
세종	3.45	69.08	81.64	0.85	0.021	0.018	6.58	9.352	0.70	0.025	0.018	21.6
경기	3.28	65.61	81.64	0.80	0.021	0.017	5.11	9.352	0.55	0.025	0.014	16.6
강원	3.49	69.85	81.64	0.86	0.021	0.018	4.29	9.352	0.46	0.025	0.012	15.0
충북	3.09	61.75	81.64	0.76	0.021	0.016	9.84	9.352	1.00	0.025	0.025	16.5
충남	3.45	69.08	81.64	0.85	0.021	0.018	6.58	9.352	0.70	0.025	0.018	15.9
전북	3.14	62.84	81.64	0.77	0.021	0.016	4.72	9.352	0.50	0.025	0.013	14.7
전남	3.52	70.48	81.64	0.86	0.021	0.018	5.24	9.352	0.56	0.025	0.014	16.5
경북	3.24	64.87	81.64	0.79	0.021	0.017	7.43	9.352	0.79	0.025	0.020	15.7
경남	3.52	70.35	81.64	0.86	0.021	0.018	5.33	9.352	0.57	0.025	0.014	15.7
제주	3.16	63.26	81.64	0.77	0.021	0.016	5.90	9.352	0.63	0.025	0.016	14.0

[부표 9] 지자체 관심도 영역(1)

지역	일·생활균형 조례 유무			지자체의 일·생활 균형 제도 홍보					담당조직 유무							
	통계값	가중치	지표점수	통계값	기준값	도달률	가중치	지표점수	담당조직 형태	비상설 기구개수	비상설 기구 추가점수	통계값	기준값	도달률	가중치	지표점수
서울	1.00	0.049	0.049	5.98	19.872	0.301	0.083	0.025	0.50	2	0.02	0.54	1.10	0.491	0.057	0.028
부산	1.00	0.049	0.049	4.22	19.872	0.212	0.083	0.018	1.00	2	0.02	1.04	1.10	0.945	0.057	0.054
대구	1.00	0.049	0.049	5.43	19.872	0.273	0.083	0.023	0.50	3	0.02	0.56	1.10	0.509	0.057	0.029
인천	0.50	0.049	0.025	6.71	19.872	0.337	0.083	0.028	0.50	2	0.02	0.54	1.10	0.491	0.057	0.028
광주	0.50	0.049	0.025	6.08	19.872	0.306	0.083	0.025	0.25	1	0.02	0.27	1.10	0.245	0.057	0.014
대전	1.00	0.049	0.049	6.57	19.872	0.330	0.083	0.028	0.50	1	0.02	0.52	1.10	0.473	0.057	0.027
울산	1.00	0.049	0.049	3.07	19.872	0.155	0.083	0.013	0.50	1	0.02	0.52	1.10	0.473	0.057	0.027
세종	1.00	0.049	0.049	3.53	19.872	0.178	0.083	0.015	0.50	2	0.02	0.54	1.10	0.491	0.057	0.028
경기	1.00	0.049	0.049	5.51	19.872	0.277	0.083	0.023	0.50	1	0.02	0.52	1.10	0.473	0.057	0.027
강원	0.50	0.049	0.025	6.65	19.872	0.335	0.083	0.028	0.00	1	0.02	0.02	1.10	0.018	0.057	0.001
충북	1.00	0.049	0.049	5.36	19.872	0.270	0.083	0.022	0.50	1	0.02	0.52	1.10	0.473	0.057	0.027
충남	1.00	0.049	0.049	3.53	19.872	0.178	0.083	0.015	0.50	1	0.02	0.52	1.10	0.473	0.057	0.027
전북	0.50	0.049	0.025	4.63	19.872	0.233	0.083	0.019	0.50	1	0.02	0.52	1.10	0.473	0.057	0.027
전남	1.00	0.049	0.049	6.11	19.872	0.307	0.083	0.026	0.50	2	0.02	0.54	1.10	0.491	0.057	0.028
경북	1.00	0.049	0.049	5.53	19.872	0.278	0.083	0.023	0.00	1	0.02	0.02	1.10	0.018	0.057	0.001
경남	1.00	0.049	0.049	6.43	19.872	0.323	0.083	0.027	0.50	2	0.02	0.54	1.10	0.491	0.057	0.028
제주	0.50	0.049	0.025	6.41	19.872	0.322	0.083	0.027	0.00	1	0.02	0.02	1.10	0.018	0.057	0.001

[부표 10] 지자체 관심도 영역(2)

지역	일·생활 균형 관련 교육·컨설팅					지역사회 가족문화 관련 시설 현황					영역 점수
	통계값	기준값	도달률	가중치	지표점수	통계값	기준값	도달률	가중치	지표점수	
서울	4.07	13.752	0.296	0.017	0.005	3.29	28.06	0.117	0.021	0.003	10.96
부산	3.09	13.752	0.225	0.017	0.004	4.65	28.06	0.166	0.021	0.004	12.78
대구	5.87	13.752	0.427	0.017	0.007	4.63	28.06	0.165	0.021	0.004	11.16
인천	4.40	13.752	0.320	0.017	0.006	4.50	28.06	0.160	0.021	0.003	8.94
광주	3.90	13.752	0.284	0.017	0.005	7.94	28.06	0.283	0.021	0.006	7.49
대전	5.64	13.752	0.410	0.017	0.007	4.74	28.06	0.169	0.021	0.004	11.41
울산	4.28	13.752	0.311	0.017	0.005	6.40	28.06	0.228	0.021	0.005	9.91
세종	1.61	13.752	0.117	0.017	0.002	14.35	28.06	0.511	0.021	0.011	10.47
경기	4.70	13.752	0.342	0.017	0.006	6.27	28.06	0.224	0.021	0.005	10.97
강원	6.70	13.752	0.487	0.017	0.008	12.75	28.06	0.454	0.021	0.010	7.16
충북	4.23	13.752	0.308	0.017	0.005	15.99	28.06	0.570	0.021	0.012	11.59
충남	1.61	13.752	0.117	0.017	0.002	15.47	28.06	0.551	0.021	0.012	10.45
전북	1.59	13.752	0.116	0.017	0.002	18.50	28.06	0.659	0.021	0.014	8.68
전남	4.39	13.752	0.319	0.017	0.005	23.57	28.06	0.840	0.021	0.018	12.60
경북	9.37	13.752	0.681	0.017	0.012	15.99	28.06	0.570	0.021	0.012	9.73
경남	4.61	13.752	0.335	0.017	0.006	13.83	28.06	0.493	0.021	0.011	12.02
제주	13.78	13.752	1.000	0.017	0.017	6.36	28.06	0.227	0.021	0.005	7.45

2022년 기준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 산출

2023년 12월 10일 인쇄

2023년 12월 12일 발행

발행인 : 이 정 식

발행처 :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전화 / 국번없이 1350

인쇄처 : 도서출판 한학문화

전화 / 02-313-7593 (代)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복제를 금함.

행정간행물등록번호 11-1492000-000645-14